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3 호 3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60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3 호 (172)

1960년 3월 15일

차 례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며 당의 군중 로선을 관철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2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며 그들을 부단히 교양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나라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면서 혁명 군중을 쟁취하며 그들을 부단히 교양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은 우리 당이 혼자서 할 수는 없다. 혁명은 대중을 위한 사업이요, 인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동무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우리 당 주위에 묶어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복잡한 사정들이 많다…

…

남북의 분렬에서 오는 복잡성, 일본 제국주의 통치 시기와 우리의 일시적 후퇴 기간에 조성된 복잡성 등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우리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복잡한 사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다가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이 조건 저 조건 다 따져 가지고 대중을 분산시키면 공산주의로 나갈 사람은 몇 사람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몇 사람만 가지고 어느 섬으로 가서 그들끼리만 공산주의를 건설할 수도 없다. 우리는 반드시 대중과 함께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이 땅에 새 생활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러저러하게 문제되는 사람들을 다 개조해서 그들과 손을 맞잡고

---

* 전호에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혁명의 편에 따라 오고 로동 계급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위해서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을 왜 네 성분이 나쁘오, 무엇이 어떻소 하면서 조건을 붙여 배척하겠는가. 그래 따라 오자는 사람들을 다 떼내 버리고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다 지방주의, 종파주의자들이 하는 소리이다》(1959, 3, 23. 《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원칙은 오직 하나이다.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는 본인 하나를 보아야 한다. 그의 주위 환경이 어떻든 본인의 사상이 좋으면 그만이다. 본인이 당에 충실한가 안 한가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좀 사상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도 다 교양하고 개조해서 써야 한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장 로동자들의 구성 성분은 복잡하다. 그렇다고 해서 공장 내부에서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요, 저것도 불순한 사람이요 하면서 단결을 약화하여서는 안 된다.

응당 공장에 있는 오랜 로동자들을 기본으로 하고 로동당원, 공산주의자들이 핵심이 되여 새로 들어 온 로동자들에게 교양을 주어 용광로 앞에서, 기대 기계 앞에서 그들의 사상을 개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장 내 구성 성분이 복잡한 것을 결코 겁낼 필요가 없다.

오랜 로동자들이 핵심이 되여 새로 들어 온 로동자들을 다 교양하고 개조하여 튼튼한 로동 계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생산도 더 잘될 수 있고 공장의 질서도 째이고 사회주의 건설 속도도 더 올라 갈 수 있다》(1959, 3, 23. 《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오랜 인테리, 귀환병 누구를 물론하고 반혁명과의 투쟁, 반종파 투쟁, 반보수주의 투쟁을 통하여 다 교양하여 개조하여야 한다.

…

…반혁명과의 투쟁이나 반보수주의 투쟁이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혁명에 유리하고 어떻게 하면 혁명에 손해를 준다는 것을 심중히 고려하여 매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

오늘 우리 제도를 반대하고, 우리 당을 반대하고, 우리 혁명을 반대하는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우리를 따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분, 리력, 친척 관계 등 일체 낡은 문서를 들추지 말고 다 교양하고 개조하여 공산주의로 이끌고 나가야 한다.

우리가 과거를 캐고 친척 관계를 캐자고 하면 조선 혁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사람을 믿고 사랑하고 교양하여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지 사람을 의심하고 협애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김 일성 동지는 항상 사람을 믿고 사업에서 검열하며 교양하는 원칙을 견지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군중을 믿지 않고서는 군중을 교양할 수 없으며 개조할 수 없다. 우선 우리 당내에서부터 이러저러한 성분을 가진 사람들을 인내성 있게 개조하고 교양해 나가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몇 명 안 되던 해방 직후에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당내에 넣고 교양하자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 당이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의 핵심이 매우 튼튼하게 된 오늘날에 와서 왜 전체 당원들을 다 공산주의적으로 소화할 수 없겠는가? 다 소화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광주리는 해방 직후와는 비할 바 없이 커졌다. 우리는 100만 당원들을 다 담아 가지고 능히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붉게 물들일 수 있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때나 우리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 믿고 사업에서 검열해야 한다.

이것이 레닌적 원칙이다…

성분이요, 친척 관계요 하면서 자꾸 남을 의심하고 일도 주지 않고 경이원지한다면 군중은 쟁취할 수 없으며 결국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소그루빠주의 또는 종파주의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혁명을 할 수 없다》(1958, 4, 26. 《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빨찌산 할 때에는…

…하여간 찾아 오는 자는 다 믿자는 원칙을 세웠다. 믿고 싸우면서 검열하자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였다. 싸움터에서 검열했다. 만약 싸움판에서 잘 싸우면 그만이지 무엇을 더 의심할 필요가 있는가?》(1958, 5, 11.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량강도 당 단체들의 기본 과업》).

《좋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 버리는 것은 우리의 큰 손해로서 우리 당일'군들은 아주 가슴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한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보아야 한다. 의심스러운 점도 보고 믿을만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

사람 문제 특히 혁명적 동지 문제를 잘못 처리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군중 관점에 대하여 우리가 자꾸 부르짖는데 군중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하나이라도 더 건지고 혁명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대렬에 더 단결시키자는 것이다》(1958, 4, 26. 《당 검열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는 현재가 중요하다. 어제는 몰라서 우리를 반대했으나 오늘은 깨닫고 우리를 지지하며 일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단결하고 같이 나가야 한다》(1959, 3, 23. 《함북도 당 단체들의 과업》).

《설사 과거에 지주나 자본가에게 복무하고 그의 영향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늘 우리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를 포섭해야 한다.

…

주저하는 사람도 교양하여 같이 가도록 하고 채 못 깨달은 사람도 깨우쳐 주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3 군중 공작 방법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김 일성 동지는 군중을 단결시키기 위하여 매개 당원들과 일'군들이 군중 공작을 능숙하게 수행하며 군중 공작 방법을 체득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이 정당하게 수립된 다음에는 사업의 성과적 수행 여부는 일'군들의 실지 사업 방법 여하에 달려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대중을 이 사업에 조직 동원하는가에 달려 있다.

만일 우리 당과 정권 기관의 일'군들이 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데 그릇된 사업 작풍과 방법으로 하며 광범한 군중을 이 사업에 동원하지 못한다면 우리 당의 정당한 정치적, 조직적 대책들은 모두다 수포로 돌아 가고 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령도 방법과 간부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는 우리 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1955, 4, 1. 《당 및 정권 기관 내 일부 일'군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각급 당 단체들은 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간부들과 당원들을 교양하며 대중 속에 당 정책을 침투시키며 그들을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시키는 군중 공작을 당 사업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군중 사업을 잘 조직할 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

군중 사업을 잘 하려면 매개 당원들이 령도 예술을 소유해야 한다. 령도 예술을 소유함이 없이 다만 당에 대한 충실성 하나만으로써는 당원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

당원들이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군중을 당 주위에 튼튼히 집결시키며 그들에게 당 정책을 옳게 해설하여 주며 그의 실행에로 대중을 조직 동원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다 당에 대한 충실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하려면 군중과 사업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1957, 7, 5.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김 일성 동지는 군중의 지도에서나 모든 문제의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는 맑스—레닌주의적 지도 원칙과 사업 방법을 체득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사업에서 성과의 여부는 자기의 력량을 옳게 타산하며 사업의 선후차를 가리며 중심 고리를 붙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는가 못 하는가에 달려 있다… 반드시 이러한 령도 예술을 깊이 체득하고… 사업을 바로 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1959, 9, 4.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자》).

《계급 투쟁에 있어서나 자연과의 투쟁에 있어서나 적아 간의 력량 관계를 정확히 타산하고 중심 고리를 찾아내여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확고 부동한 투쟁 방법이다.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전략과 전술의 기본이다.

…

…중심 고리를 찾아내고 거기에 공격을 집중하는 것은 정치 사업이나 경제 사업이나 군사 작전을 막론하고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전략 전술적 원칙이다.

…

모든 사업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원칙을 명심해야 한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사업에서의 중심 고리는 개인의 주관적 욕망으로써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

중심 고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그들과 모든 문제들을 진지하게 토의하며 현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그러나 아직 일부 일'군들은 당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사업 방법을 개편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 지도 일'군들이 공산주의자답게 공장에 가서 로동자들과 심중히 의논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면 이러한 결함은 능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였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킬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당 사업이란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며 인민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제고하며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사람들과의 창조적 사업이다.

어떤 혁명 과업을 수행하든지 그 사업의 목적과 의의, 그의 수행 방도와 전망에 대하여 당원들과 군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제기된 과업 수행에로 조직 동원하는 정치 사업을 잘 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정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혁명 과업이 제기되면…매개 당원들에게 당의 의도를 명백히 인식시키고 구체적으로 토론하여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당적으로 분공해 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 가 과업의 내용을 알려 주고 실행 방법을 협의하여 혁명 과업 실행에 전체 일'군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것이다》(1960, 2, 18.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요지).

《위대한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는 상부로부터의 지령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대중의 창조적 로력과 열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중 정치 사업을 강화하며 인민들을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경제 건설 사업에서 사회주의적 적극성과 창발성을 다하여 참다운 사회주의 건설자답게 투쟁하게 하며 우리 사업에 남아 있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와 모든 부정적 현상들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게 하여야 한다》(1956, 4, 23.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우리 당 사업 방법은 《…군중의 의견을 청취하며 어떠한 경우를 물론하고 군중의 구체적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그들이 당이 지시한 방향으로 자각적으로 발동되며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구호들을 인민의 숙망의 표현으로 접수하도록 정치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 사업 방법은 대중 속에서 전체 우리 사

업의 기본적 방향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대중에게서 배우며 대중을 가르치라〉는 기본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이 제기한 어떠한 과업이든지 그는 인민의 리익을 반영하는 것이며 인민의 지지를 예견한 것이란 것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대책이든지 그 어느 것을 물론하고 반드시 대중과 충분히 토의하며 그들과 협의하며 정치 사업을 통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구호를 인식케 하며 그 구호들의 실천을 위하여 대중 자신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인민 대중 속에 당 정책을 침투시키는 기본 방법은 설복시키며 확신시키는 방법이다.

당은 자기의 정책을 근로 대중에게 항상 해석하여 주며 이 정책의 정당성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근로 대중 자체가 우리 당의 정책을 실천함에 있어서 열성적으로 또는 헌신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1952, 12, 15. 《로동당의 조직적 사상적 강화는 우리 승리의 기초》, 선집, 제 4권, 319~320페지).

《당원들이 당 정책의 정확성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당 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확신을 가지고 동원되는 때에라야만 그들의 창조력이 발양되는 것이며 적극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 단체들은 구체적 대책을 세워 가지고 사상 동원 사업을 하여야 한다》(1958, 8, 5. 《자강도 당 단체들 앞에 나서고 있는 몇 가지 과업》).

《우리 당 일'군들은 다 조직자로 되고 선전원으로 되고 선동원으로 되여야 한다…당 일'군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조직부에서 나가도 다 선동 사업을 할 줄 알고 교양 사업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선전부에서 나가도 조직부 사업을 할 줄 알고 간부를 연구할 줄 알아야 한다. 딱 갈라 놓고 선전밖에 모른다거나 조직밖에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무슨 혁명가인가. 우리가 과거에 지하 공작을 할 때에는 당 조직 사업도 하고 당 선전 사업도 하고 선동 사업도 했다. 우리는 그런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1958, 3, 7. 《도, 시, 군 당 위원회 위원장 및 인민 위원회 위원장들 앞에서 한 연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나 천리마의 진군도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고 당을 무한히 신뢰하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새 생활을 창조하려는 우리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떠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

… 정치 사업에는 후방 사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후방 사업을 떠난 정치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정치 사업을 잘 하려면 후방 사업도 잘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생산력인 사람에 대한 태도를 옳게 가져야 한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당 단체와 당 일'군들은 근로자들의 일상 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에 대한 일상적 배려는 우리 당 활동의 최고 법칙이다.

…

당은 언제든지 군중의 리익의 믿음직한 옹호자로 되여야 한다. 근로자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현상과 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반드시 커다란 전변을 일으켜야 한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군중의 력량에 의거하여 사업하며 지도를 군중에 접근시키며 군중과의 련계를 강화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의 많은 간부들에게는 혁명적 경험이 부족하고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이 부족한 데로부터 모든 문제를 혁명적으로 생각하며 처리하는 혁명적 사상 관점과 사업 방법이 튼튼히 확립되여 있지 못하다.

혁명적 사업 방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군중의 힘에 의거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군중 속에서 배우며 군중 속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

…

우리가 10 여년 간 산으로 다니면서 일본놈들과 싸울 때에도 사정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는 얼마 안 되는 혁명적 무장력을 가지고 강대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웠다. 물론 우리의 힘은 크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잃지 않았다. 그 때에도 우리는 항상 군중 속에서 힘을 얻었다. 군중들은 반드시 일본놈들이 망한다는 것을 말했으며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군중 속에서 혁명적 사고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이다.

우리가 혁명 전통을 연구하는 것도 선렬들의 혁명 정신을 배우기 위한 것이다. 그 때에는 우리가 일제를 반대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였고 지금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니까 사정이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때의 혁명가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과 그 사고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승리에 대한 신심을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문제를 정당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혁명적 군중들과 완전히 통일될 수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요함이 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1959. 12, 4.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당 일'군은 일상적으로 대중과 만나서 담화하며 그들의 요구와 숙망을 찾아내는 기초 우에서 군중 공작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이 대중의 신망을 받을 수 있고 대중이 당 정책의 실행을 위한 투쟁에 의식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 사업의 방법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옛날부터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군중과 상의하고 군중의 힘을 합쳐야 장수지 혼자서는 용빼는 재간이 없다.

반드시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의 의견에 세심히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사업에서 결함을 적게 나타낼 수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1959, 9, 4.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틀틀히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자》).

《제일 총명한 자는 생산자이다. 기계를 깎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입을 열게 하여야 한다.

매개 지도 일'군들은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로동자들이 입을 열어 자기의 의견을 제때에 말하도록 하며 그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온갖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여 높은 로력적 성과를 올리도록 하며 당 정책을 외곡하며 그의 집행을 태공하는 경향들과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는 정치 사업에 주력하여야 한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지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현지 지도는 주관주의를 극복하며 아래 일'군들에게 실질적 방조를 주는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다.

우리 리 당 위원장이나 공장 당 위원장들이 아직까지도 수준이 어리고 조직력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고하는 방법, 조직하는 방법, 결심을 채택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당 중앙으로부터 기층에 이르기까지 현지 지도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

모든 일'군들이 다 현지에 접근하고 있으며 하부의 실정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중 속으로 깊이 들어 가고 있다. 우리 지도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면이 형식적이다. 지금 군에서도 많이 돌아는 다니는데 실정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아래 일'군들에게 실질적 방조는 많이 주지 못하고 있다.

현지 지도에서 이러한 결함을 더 시정해야만 우리 당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 올 수 있다》(1958, 8, 18. 중앙 당 학교 3년제반 제 1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

《책임 일'군들만 하부에 침투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도하는 모든 일'군들

이 다 그렇게 하도록 발동시켜야 한다.

…

하부에 내려 가서도 군중 속에 들어 가지 않고 몇몇 간부들과 간단히 담화하고 공장이나 조합을 한 바퀴 돌아 오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총명하다 할지라도 한두 시간 돌아 보는 것으로써는 어떤 공장 형편을 정확히 료해할 수 없다.

…

당 회의에 참가하여 당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며 생산 협의회에 참가하여 혁신자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그 공장 사업에서 무엇이 결함이고 무엇을 해결해야 전반적 고리가 풀릴 수 있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농산 지도도 그렇다.…

농촌 실정을 알자면 농업 협동 조합 당 회의에 참가하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고 조합원들의 의견도 들어 보아야 할 것이다》(1959, 10, 21~22.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문화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시, 군 당 위원장 동무들은 한 달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초급 당 단체 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농촌, 공장, 학교 등 각 부문의 당 회의, 분조 회의에 많이 참가할 것이며 군중 회의들에도 자주 참가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원들의 당성이 어느 정도인가, 당원들의 사상—정치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당원들의 군중 령도 능력이 어떤가, 시, 군 당 위원회가 당원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을 알 수 있다》(1957, 7, 5.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의견을 듣기만 하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 없는 일이다. 문제는 군중들과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때에 해결해 주는 데 있다》(1959, 9, 4. 《모든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튼튼히 틀어 잡고 그에 력량을 집중하자》).

《당 일'군은 항상 군중 속에서 살아야 한다. 당은 인민 대중의 생생한 창조적 생활 속에 깊이 들어 감으로써만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대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기본 요구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군중 속에 들어 가서 그들과 밀접한 련계를 맺기 위해서는 군중과 같이 일하며 군중과 같이 호흡해야 한다.

…

…우리 당 지도원들이 농촌에 나가서 마당도 쓸어 주고 일도 같이 하고 쉬는 짬에 담화도 하고 나쁜 점은 고치도록 이야기해 주고 이와 같이 군중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니까 거기서 자연 나쁜 놈도 발견해 낼 수 있고 옳지 못한 경향도 찾아 낼 수 있고 군중의 요구가 무엇인지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1958, 11, 20.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낮에는 농민과 같이 일하고 농민이 논밭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리용하여 선전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그렇게 하는 때에라야만 농민이 선동원을 신임하고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낮에 농민들이 전부 논밭으로 나가는데 선동원은 동리에서 산보하다가 밤에 와서 농민들이 피곤할 적에 집합시키여 선전하는 것은 농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군중이 알아 듣기 힘든 술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나는 수첩에 술어를 많이 써 가지고 다니며 알기 힘든 술어를 많이 써서 말하는 청년 선동원들을 보았다. 이러한 선동원들은 군중에게 알아 듣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아무 효과도 주지 못하는 선동원들인 것이다》(1946, 5, 30. 《민주주의 조선 건설에 있어서의 청년들의 임무》, 선집, 제 1권, 108~109페지).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쉬운 말로 해야 한다》(1958, 11, 20.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과거에 행세'거리로 공산주의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는 것은 없고 공산주의 냄새는 피워야 하겠으니까 목책에다 무슨 〈이데올로기〉요, 〈헤게모니〉요, 〈프로레타리아〉요 하는 등의 서양말 술어를 적어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런 남이 알아 듣지 못할 말들을 섞어서 올려 헤구 내려 해구 하였다.…

이런 식으로 군중 앞에 나서서 연설한다면 로동자, 농민들이 무슨 소린지 알리가 만무하다.…

이런 버릇은 아예 걷어 치워야 한다.

…

…동무들은 과거의 종파'군들과 행세식 공산주의자들의 사업 작풍의 여독을 완전히 빼 버리고 인민 속으로 깊이 들어 가야 한다》(우와 같은 문헌).

《군중들 속에서 사업하기 위하여서는 당 단체들은 민청, 직맹, 녀맹 등 당 주위에 있는 외곽 단체들을 옳게 지도해야 한다. 당은 언제나 자기의 외곽 단체들을 통하여 군중 속에서 당의 정책을 선전하며 혁명적 교양 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초급 당 단체들은 민청, 직맹, 녀맹 등 사회 단체 사업과 통일 전선 사

업을 잘 할 줄 알며 로동자, 농민, 녀성, 청년, 학생, 문화—예술인, 상공업자, 종교인 등 각계 각층 사람들 속에서 능숙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당원들을 교양 훈련해야 한다. 만약 매개 당원들이 모든 사람들과 능숙하게 사업할 수 있는 령도 예술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다》(1957, 7, 5. 《도, 시, 군 당 일'군들과 당 조직원들 앞에서 진술한 연설》).

《사회 단체들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당이 혼자서 혁명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당의 령도적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다.

군중 단체들의 사업인즉 곧 당 사업인 것이다. 그것은 다 당의 정책을 군중 속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당을 위한 사업인 것이다》(1959, 2, 21. 2, 26. 《당 사업 방법에 대하여》).

❊ ❊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해야 하며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워야 한다. 군중을 쟁취함이 없이는 당도 강화할 수 없고 혁명도 할 수 없다.

…

당, 정권 기관, 경제 기관, 사회 단체의 간부들을…통하여 100만 당원을 다 당의 충직한 전사로 만들며 매개 당원들로 하여금 군중 사업을 할 줄 알고 당원의 선봉적 역할을 옳게 수행하게 한다면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더욱 튼튼하여 질 것이며 당의 전투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 끝

(위 찬길 편집)

권 두 언

당 사업 체제와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자

최근 김 일성 동지는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 사업과 이와 관련하여 하신 일련의 교시들을 통하여 당 사업 체제를 개편하며 당 사업 방법을 바로 잡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으며 지금 전 당은 그의 실현에 동원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 사업과 이 교시는 우리 당 건설에서 거대한 사변으로 되며 당 사업 발전에서 하나의 전환점으로 될 것이다.

당 건설에 있어서 주되는 것은 당원들의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당 사업 체제와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 완성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특히 우리 당 건설에 있어서 절실하게 제기되였으며 따라서 우리 당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종일관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우리 당 건설의 특성으로부터 당원들의 당적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은 당 창건 초기부터 가장 선차적이고 날카로운 문제로, 사활적 문제로 제기되였다. 그것은 해방 후 우리 당 내외의 사정이 어려웠고 당원들의 구성이 복잡한 조건하에서 전 당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에 무한히 충실하며 그의 의도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사업하는 혁명 투사들의 강철의 대오로 꾸리지 않고서는 우리 당은 전진할 수 없고 혁명의 참모부적 역할을 참답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며 혁명을 위한 모든 사업의 출발점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특히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우리 당 제 3차 대회 이후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당적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당 내에서는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서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종파의 오물들이 깨끗이 제거되였고 전체 당원들의 계급적 각성과 정치적 열성이 비상히 높아졌다. 이리하여 누구나 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를 적극 옹호하고 당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혁명 사상으로 충만되여 있다. 당의 핵심 진지도 튼튼히 구축되였고 모든 당 단체들과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은 계급적 립장이 확고하고 당에 무한히 충실한 일'군들로 꾸려졌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초급 당 단체, 그리고 지도 간부들로부터 일반 당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말하며 움직이는 그러한 강철의 대오로 장성 강화되였다. 바로 이것이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해방 후 15년 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그 무엇으로써도 바꿀 수 없는 첫째가는 고귀한 전취물이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당적 사상 체계 확립을 위한 투쟁과 함께 당 사업 체제를 확립하며 사업 방법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도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당 사업 체제와 방법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내용은 행정식, 명령식 사업 작풍과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을 극복하고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수립된 인민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제이다. 그런데

해방 직후 우리 당내에 단련되고 준비된 간부가 적은 기회에 당의 지도적 자리에 기여 든 허 가이, 박 창옥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이 부식하여 놓은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은 우리 당 사업에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당 사업 방법 개선을 위한 투쟁에 커다란 장애를 주었다. 우리 당은 매 시기에 조성된 환경에 적응하게 당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부단히 전개하여 왔다. 1952년 2월 김 일성 동지의 연설, 행정구역의 개편, 당 중앙 위원회 1955년 4월 전원회의 등을 계기로 이 사업에서는 거대한 전진이 이룩되였다.

특히 우리 당 제 3차 대회 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실천적 모범에 의하여 당 사업 방법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혁명 임무와 급격히 장성하는 현실의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에서는 아직도 결함들이 허다하며 우리의 일부 당 단체들의 사업은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적 당 사업 방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에 와서 우리 당 사업에서 걸려 있는 결정적 고리로 되였으며 그러므로 지금 우리 당의 주의는 이 문제 해결에 집중되고 있다.

왜 우리 당은 오늘 이 문제를 당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하고 반드시 해결하려고 달라 붙고 있는가? 그것은 당 사업에서의 행정식 방법, 형식주의적 방법이 당 정책을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당 정책을 도중에서 '머무르게 하여 그의 실현을 방해함으로써 혁명 수행에 결정적인 장애를 주기 때문이다. 사업에서의 낡은 방법 이것은 하부에 깊이 침투하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번잡한 회의만 열고 결정서나 만들고 지시문이나 띄우는 것으로써 지도를 대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낡은 사업 방법으로서는 일'군들이 군중 속에 깊이 들어 갈 수 없고 현실을 정확히 료해 파악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사업에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도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러한 낡은 사업 방법으로는 당원들과 군중들을 혁명에 자각적으로 동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당이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집행하려는 일'군들의 열성이 높다 하더라도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 행정이 당적 방법으로 되지 않고 행정식 방법, 형식주의적 방법으로 될 때에는 응당 거둘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며 당 정책은 하나의 좋은 희망으로 남게 될 뿐이다. 지금 우리의 일부 당 단체들의 형편이 바로 이러하다. 그들은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사업에 대한 명백한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도까지 받고 있으며 또 자신들이 하겠다는 열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리유는 바로 사업을 낡은 방법으로 진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특히 군 당 위원회 사업에서 집중적으로 발로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의 일부 군 당 위원회들이 사업을 얼마나 형식주의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것이 혁명 과업 수행에 어떻게 지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은 최근 진행된 영흥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비판된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작년 12월 말에 군 당 위원회는 리 당 위원장들을 불러다가 12월 확대 전원 회의 문헌 침투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매 사업이요, 자급 비료 생산이요, 지방 원료 원천 탐구 사업이요, 교양망, 강연 체계 개편이요 하면서 단꺼번에 스물 네 가지의 《뭉테기 과업》을 주었으며 그것도 부족하여 5일만에 다시 불러 일곱 가지 과업을 또 주었다. 그리고는 뒤미처 군 당, 군 인민 위원회 지도원들이 매일 4~5명씩 리에 내려가 이것 하라, 저것 하라 하면서 지시만 하고 리급 일'군들을 사무실에 붙들어 놓았으니 그들이 당원들과 농민들 속에 들어 갈 수 없은 것은 물론 군 당 위원회가 준 과업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당의 농업 정책은 정확히 관철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 일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 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낡은 사업 방법은 우리의 전진을 결정적으로 저애하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사업에서 행정식, 형식주의 사업 방법을 극복하는 것이 절실한 과업으로 나서는 것은 이 낡은 방법이 사회주의 경리 형태의 유일적 지배가 확립된 오늘에 와서는 지난 시기에 비할 수 없이 더 직접적으로 더 엄중하게 사업에 해독을 주기 때문이다. 과거 개인농 때에는 농민들 자신이 자기의 농사를 직접 책임지고 운영해 왔다. 즉 생산을 계획하며 판매하고, 소비하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직접 담당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지도 일'군들의 형식주의적 사업 방법은 농촌 경리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농민 전체가 집단 경리에 망라된 오늘에 와서는 농촌 경리의 전반적인 발전과 농민들의 개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조합 관리 위원회와 지방 당 단체들의 활동 여하에 달리게 되였다. 따라서 일'군들의 사업에서의 결함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 또 더 엄중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사업에서 행정식 방법, 형식주의적 방법을 퇴치하는 것은 가장 긴요한 과업이며 이것을 극복함이 없이는 우리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게 되였다.

오늘 우리 혁명 과업 수행에서 걸려 있는 고리가 바로 이것이다. 이 고리가 해결됨으로써만 우리는 제 2차 5개년 계획을 준비 있게 맞이할 수 있으며 특히 금년도 완충기에 농촌 경리 부문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 올 수 있다.

금번 김 일성 동지는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와 교시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 주었다. 문제는 우리의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김 일성 동지의 교시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교시 내용 대로 정확히 실천하는 데 있다.

이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군 당 위원회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그의 조직 지도자적 기능을 제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낡은 사업 방법은 군 당 위원회의 사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것은 오늘 우리 당 사업 강화와 혁명 임무 수행에 있어서 군 당 위원회의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 당 위원회는 오늘에 와서 우리 당의 말단 지도 기관이며 당의 모든 정책과 결정 지시들은 여기에 와서 구체화되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직접적인 조직 사업이 진행된다. 따라서 이 단위에서 사업을 잘 조직 지도하고 집행하는가 못 하는가에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군 당 위원회의 사업 체제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도 일'군들이 군 당 위원회의 사업에서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이에 따르는 그의 기능과 임무를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께서 변천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당 사업과 인민 정권 기관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군 당 위원회들과 지도 일'군들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부족하였던 탓으로 자기 사업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지 못하였다.

군 당 위원회의 사업에서 중요 대상은 농촌 당 단체들이다. 때문에 군 당 위원회의 사업에 조성된 새 환경이란 바로 농촌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말한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농업 협동화가 완성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개 리가 하나의 조합으로 통합 확장된 결과에 리는 행정 단위이면서 하나의 생산 단위로 되였으며 리 당 위원회는 직접 생산 단위의 초급 당 단체로 되였다. 따라서 군당 위원회와 농촌 당 단체 간, 군 인민 위원회와 농업 협동 조합 간에는 어떠한 중간 다리가 없다.

다음으로 농민들의 생활과 의식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조합원들은 개인 경리를 하던 지난 날의 농민이 아니라 공동 로동에 참가하며 로동에 의하여 몫을 타는 사회주의적 농민으로 되였다. 더우기 최근 년간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이 성과 있게 수행됨으로써 농민들의 사상 의식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이것은 농촌 당원들과 조합원들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진보된 의식과 생활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 협동 조합의 사업 범위와

규모도 확대되였다. 오늘 농업 협동 조합은 알곡 생산을 계속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수리화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기계화, 전기화도 촉진시키며 축산, 양잠, 과수 등 다각 경리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생산적 건설도 진행하여야 하고 문화 혁명도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은 많아지고 복잡하여지고 다양하여졌다.

이러한 사정은 역시 조합 관리 일'군들과 리당 일'군들의 지도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많은 리당 및 관리 위원회 일'군들의 수준은 현실의 발전에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의 량과 요구에 비하여 그들의 능력은 매우 부족하다.

이와 같이 변천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하에서 군 당 위원회의 사업 지도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리가 생산 단위로 된 것 만큼 사업을 군 당이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둘째로 부과된 과업이 방대하고 복잡한 데 비추어 준비 정도가 낮은 리급 간부들을 직접 도와 주고 배워 주는 것, 이것이 군 당 위원회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군 당 위원회가 새 환경에 적응하게 자기 사업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군 당 위원회는 생산 단위인 리와 직접 련결된 우리 당의 말단 지도 기관으로서 군대에서 말하면 직접 전투를 조직하는 전술적 단위인 련대 지휘부와 같으며 공장에 비유하면 큰 공장 당 위원회와 같다. 따라서 군 당 위원회는 군내 모든 당 단체들을 장악하고 일체 사업을 직접 조직하며 집행하는 단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지난 날처럼 사무실에 틀을 차리고 앉아서 개인농 시대의 면 당 위원회를 지도하듯이 리 당 위원장들을 불러 올리거나 결정서와 지시문을 만들어 하부에 전하고 독촉만 하는 식으로 사업하여서는 안 되며 생산 단위에 조직된 우리 당의 기층 조직인 리 당 단체에 내려 가야 한다. 일'군들은 내려 가서도 따지고 추궁하고 독촉할 것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직접 일을 같이 하면서 사람도 료해하고 당 정책도 해석해 주어야 하며 또한 그들과함께 사업을 조직하고 분공도 주며 회의에 참가하는 등으로 초급 당 단체 일'군들을 배워 주며 적극 방조하여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군 당 위원회는 그 누구에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조직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사업함으로써만 리 당 단체의 기능을 현실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제고할 수 있다. 군 당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기능과 이 역할을 반드시 높여야 한다. 그러면 군 당 위원회가 이러한 조직 집행자적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자면 군 당 위원회는 지난 날과 같이 리 당 위원장 한 사람을 대상하여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고 과업을 불러 올려다가도 주고 내려 가서도 주는 식으로 사업하여서는 안 된다. 오늘 그 많은 과업을 리 당 일'군들만으로써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는 리 당 위원장들만을 대상하여 사업하던 지금까지의 낡은 수공업적 사업 방법을 버리고 당 조직을 움직이고 전체 당원을 움직이는 진정한 당 사업 방법으로 일하여야 한다. 진정한 당 사업이란 전체 당원들을 당 사업에 인입시키며 그들을 통하여 대중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당이란 곧 당원 대중이 뭉친 조직체이다. 당 사업이란 바로 이 조직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움직여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다》(김 일성.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한 연설 요지)

이 조직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개 당원들에게 당의 의도를 명백히 인식시키고 구체적으로 토론하여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당적으로 분공해 가지고 군중 속에 들어 가 과업의 내용을 알려 주고 실행 방침을 협의하여 혁명 과업 실행에 전체 일'군들이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김 일성. 강서군 당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한 연설 요지) 하여야 한다.

사람이 건전하려면 모든 기관 세포들이 다 움직이고 혈기 왕성해야 하는 것처럼 당 조직이 건전하려면 모든 당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사실에 있어서 당 조직과 당원 대중이 움직이지 않고 개별적 당 일'군들, 몇몇 당원들의 힘과 지혜만으로써는 당 앞에 제기된 복잡한 혁명 과업을 수행해 낼 수 없으며 전체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가하에서만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전 당을 움직인다는 것은 전체 당원들을 다 일상적으로 당 규약상 요구 대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즉 군 당은 리 당을 발동시키고 리 당은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키고 모든 당원은 군중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업에서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낡은 사업 방법을 극복하게 하는 결정적 고리이다.

사업이 형식주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일'군들이 객관적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으며 광범한 당원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하는 데 있다. 우리의 당원들은 직접 생산에 참가하고 있으며 인민 대중과 함께 생활하면서 당 정책을 직접 집행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민 대중의 요구와 감정을 똑똑히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당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으며 실생활에서 여하히 구현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전체 당원들을 옳게 발동시키고 그들에게 철저히 의거한다면 현실의 구체적인 측면들을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전체 당원들이 당을 위하여 생각하고 연구하고 행동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무진장한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 무진장한 힘을 옳게 조직 동원한다면 사업 집행에서 일면성과 우연성을 극복할 것은 물론이고 당 사업은 높은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다. 또한 전체 당원들을 당 사업에 적극 인입시키는 것은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의 사업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전체 당원들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형식주의 사업 작풍은 견디여 내지 못하며 또 발생할 수 없다.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현지 지도 사업에서의 중요한 교훈도 바로 모든 사업을 당원들과 대중들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하는 것이 형식주의를 퇴치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 특히 군 당 일'군들과 리 지도 일'군들은 전체 당원들을 빠짐 없이 당을 위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이 당 사업 개선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오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을 당 사업에 인입시키는 것은 행정식 명령식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그들이 목적 의식적으로 동원될 때에라야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원들에게 당 정책을 깊이 인식시키며 집행을 위한 방도를 똑바로 세워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의 의도가 무엇이며 그를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당이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체 당원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것은 항상 하부 실정에 정통하며 [illegible] 료해 사업을 선행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맑스주의 사업 방법의 기본 출발점이다. 실정을 료해함이 없이는 발언권이 없다. 실정을 모르고서는 당 정책의 정확한 실행 방침을 수립할 수 없으며 더구나 당원들에게 정확한 분공도 줄 수 없다. 우리의 사업에서 형식주의가 발로되는 것도 바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정을 료해하기 위해서는 하부에 접근하여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밑에 자주 내려 가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담화하며 군중으로 하여금 입을 열고 자기의 소감과 요구를 말하게 하여야만 현실을 옳게 파악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행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전체 당원들을 당 사업에 인입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개 당원들에게 일상적으로 그들의 력량에 알맞는 정확한 사업 분공을 주는 것이다. 당원들이 발동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 않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의 일부 당 단체들은 당 사업에 대한 분공을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수준 어린 적지 않은 당원들을 사업 분공에서 제외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그릇된 현상이다. 사업 분공은 매개 당원들의 사업 위치와 능력에 알맞게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당원들 특히 수준이 어린 당원들에게 항상 분공을 주어 일을 시켜야만 그들의 능력도 높아질 수 있다.

당원들에게 분공을 주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분공된 과업의 실행 정형을 수시로 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행에 대한 총화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경험이 창조되였고 어떤 편향이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 확인하고 새로운 대책들을 기동적으로 강구하게 한다.

집행에 대한 총화는 해당 당원들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주로는 하부에 직접 내려 가서 산 현실에 근거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을 당 사업에 인입시키는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대중을 당의 의지 대로 발동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당원들의 사업에 대한 총화는 주로 대중 속에서의 그들의 활동과 결과로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100만 당원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 많은 당원들이 다 자각적으로 당을 위하여 발동된다면 당은 실로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군 당 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새 환경에 적응하게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 당 위원회 일'군들 특히 지도원들과 리급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맑스—레닌주의 교양과 함께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모든 문제 해결의 고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옳고 그른 것을 당적 립장에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정치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이와 함께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인민적 사업 작풍과 사업 방법을 연구 파악하며 오늘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령도 작풍을 체득함으로써 사업에서 관료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 작풍을 근절하며 지도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일'군들의 지도 수준은 실제 사업을 통하여 부단히 높여야 한다. 사업 행정은 당 정책의 구체적인 집행 과정이다. 우리는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 정책을 깊이 파악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의 위력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된다. 또한 부단하고 거듭되는 실천 행정을 통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조직하며 대중을 동원하는 훌륭한 지도 방법을 체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 당 위원회 책임 간부들은 당 결정 지시들을 지도원들과 리급 일'군들에게 알려 주어 그들이 완전히 파악케 한 다음 실제 사업에 동원시키며 제때에 총화하여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오늘 군 당 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개선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고리는 리에 내려 가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는 것이며 당 조직을 튼튼히 틀어쥐고 전체 당원들을 발동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반드시 강조하여야 할 것은 군 당 위원회는 군내의 완전한 집체적 령도 기관으로서 군내 모든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을 지도 통제하여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군 당 위원회는 자신이 리에 내려 가 사업을 직접 조직 집행하는 것처럼 군내의 정권 기관, 사회 단체들도 일상적으로 하부에 내려 가 당 정책을 침투하며 사업을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도록 지도 통제하여야 한다. 특히 군 인민 위원회로 하여금 낡은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완전히 근절하고 전체 일'군들이 리에 내려 가 관리 위원회 일'군들과 함께 농촌 경리를 직접 계획하고 조직하고 집행함으로써 당의 농업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군 당은 리 당 단체를 통하여, 군 인민 위원회는 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사회 단체들은 자기 하부 조직을 통하여 전체 당원들과 전체 군중들을 당 정책 집행에로 조직 동원한다면 우리 사업이 성과 있게 수행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당 중앙 위원회는 일부 당 단체들의 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는 행정식, 형식주의적 낡은 사업 방법을 극복하고 당 사업 체제와 지도 방법을 새 환경에 적응하게 개선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려고 한다.

각급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은 강서군 당 단체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와 이와 관련하여 하신 일련의 교시들을 깊이 연구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기 사업을 검토 분석하며 개선함으로써 금후의 사업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 오도록 하여야 한다.

로동당원의 혁명가적 품성

100만의 로동당원은 다 혁명가이다.

혁명가란 원래 일생을 두고 인민 대중의 리익, 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싸우는 열렬한 공산주의 투사들이다. 혁명가는 맑스—레닌주의 위업, 프로레타리아트 위업의 정당성과 그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곤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항상 계급적 립장, 당적 원칙을 고수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그들은 당과 혁명의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어떤 사소한 비원칙적인 것과도 타협할 줄 모른다. 황금도, 권세도, 명예도 그들을 동요시킬 수는 없다. 그들은 생활에서나 사업에서나 항상 결백하고 청렴하다. 세계를 혁명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그들은 부단히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리론과 사업 방법의 습득에 전력을 다하며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한다. 그들은 군중의 우에 서는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인민의 충복으로서 항상 그들과 함께 살며 군중에게 겸손하고 례절 바르며 사회의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데 모범적이다.

인류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락원에로 인도하는 길——이 길은 형언할 수 없는 간난신고의 길이다. 이 험난한 길을 헤치고 또 헤치며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는 사람들, 그들은 특수한 형의 인간이면서 또 가장 평범한 보통의 인간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즐기며 부모, 처자, 친우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아름답고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귀중히 여길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오직 공산주의의 위업에, 당과 혁명의 리익에 복종시킬 줄 아는 그 점에서 특수하다.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의 해방과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할 줄 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혁명가들의 전형을 항일 무장 투쟁 시기의 공산주의 투사들에게서 본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간고한 혁명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 《누가 누구를》 하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더욱 첨예화되여 가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이 확대되고 심화되면 될수록 계급적 원쑤들은 우리 혁명을 저지시키려고 더욱 발악한다.

우리는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빨리 추진시킴으로써만 원쑤들을 하루 속히 물리치고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빨리 추진시키자면 련달아 제기되는 혁명 과업들을 지체 없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이 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명백한 방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세는 비상히 높다.

만일 우리 전체 당원들이 과거 항일 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사업에서 혁명가다운 태도, 전투적인 기질, 세련된 지도 방법과 작풍을 소유하고 이악하게 싸워 나간다면 우리에게 해결 못할 과업이란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이 전체 당원들에게 부단히 자기를 단련하고 수양하면서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 분투하는 고상한 혁명가적 품성을 더욱 높이라고 강조하는 리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당에 대한 충실성, 당 정책 집행에서의 완강성과 혁명적 전개력

당에 충실하다는 것은 당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 몸을 희생시킬지언정, 피를 흘릴지언정 당 정책을 철저히 실행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들이 당에 충실한 사람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혁명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어떤 곤난이든지 이겨 나가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한다…하면 하고 말면 마는 태도로 혁명에 참가하는 눅거리 공산주의자가 돼서는 싸움을 못 한다.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쌀, 고기와 빨고랑 하나라도 더 얻어 내겠는가 하고 밤'잠 안 자고 기를 쓰며 일해야 정신이 들고 성수가 난다.

우리 당원들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자고 하면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은 원래 간고한 사업이다. 낡은 것을 마스고 새것을 창조하는 우리 혁명 앞에는 항상 예견하지 않았던 크고 작은 난관들이 허다히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승리를 위한 난관이며 전진을 위한 난관이다. 로동당원들은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항상 이러한 난관을 락관적으로 대하며 그것을 끝까지 뚫고 나가는 혁명가다운 완강성과 혁명적 전개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항일 유격대원들이 지휘부와는 수십 일씩 련락이 끊어지고 적들로부터는 첩첩히 포위된 말할 수 없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든 간난 신고와 싸우면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전투 승리를 보장한 영웅적인 사적들을 무수히 알고 있다.

지하리—평산 간 철도 부설 공사에 동원되였던 청년들은 당이 준 임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수행하겠는가 하는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책임 간부들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얼음 언 강물에 들어 가 《도적일》을 하였으며 독로강 발전소 건설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완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령하 수십도의 혹한에도 물 속에서 가물매기 공사를 보장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당 정책을 접수하고 집행에는 착수하나 일단 시작한 일을 끝까지 관철하고야 마는 혁명가적 기질이 부족하다. 이러한 일'군들은 적지 않은 경우에 쟁개비 끓듯이 더웠다 식었다 하면서 사업에서 전투적 기백이 없이 기분과 감정으로 사업을 경솔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창발성을 발휘하지 않으며 약간한 곤난에 부닥치기만 하면 그것을 극복해 나갈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소리를 하면서 하던 일마저 단념해 버리는 나약성을 발로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을 이악하게 내밀지 못한다면 당 정책을 관철할 수도 없으며 혁명을 촉진시킬 수도 없다.

혁명가들은 아무리 곤난하고 복잡한 환경에 부닥친다 할지라도 추호도 동요함이 없이 당적 원칙을 고수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킨다.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당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완강성, 혁명적 전개력, 이것이야말로 우리 당원들이 반드시 소유하여야 할 첫째가는 품성인 것이다.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작풍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인민 대중의 지혜와 힘을 믿고 그들을 옳게 조직 동원하여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고 총명한 자는 생산자 대중이다. 그들은 어떠한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위대한 력량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 정책이 항상 정당하며 걸음마다 승리하고 있는 것은 당이 바로 혁명 군중의 지

혜와 힘에 철저히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후 시기만 보더라도 우리 당은 혁명 군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들의 창조적 열성을 옳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중첩된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오늘 보는 바와 같은 천리마의 대고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었다.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이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생활력을 이룬다. 인민 대중이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생한 사회주의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그러나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은 당의 정치, 조직 사업과 결부됨으로써만 위대한 실천적 력량으로 된다. 당이 정치 사업을 모든 사업에 선행시키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어떤 혁명 과업을 수행하든지 그 사업의 목적과 의의, 그의 수행 방도와 전망을 군중에게 충분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제기된 과업 수행에로 조직하고 동원하는 정치 사업을 잘 하지 않고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문제는 대중이 동원되는 데 있다. 《옛날부터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군중과 상의하고 군중의 힘을 합쳐야 장수지 혼자서는 용빼는 재간이 없다》(김 일성).

우리의 일부 지도 일'군들은 당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연히 행정식, 명령식 사업 방법을 지속하고 있다. 그들은 번잡한 회의와 문서 노름에 시간을 허비하면서 군중 속에 들어 가지 않고 한장의 결정서나 지시문으로써 당 정책이 집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일부 일'군들은 또한 목전의 사소한 《성과》나 자기의 공명을 추구하는 데 눈이 어두워져 인민의 리해 관계에 고려를 돌리지 않으며 지어는 인민의 리익을 침범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혁명을 좀 먹는 범죄적 행위이다.

군중과 군중의 리익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대중 속에서 불만을 야기시키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를 마비시키며 당에 크나큰 정치적 손실을 준다.

우리는 인민의 리익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침범하는 이러한 관료주의적 행동과는 무자비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오직 혁명을 위한 당이며 로동계급과 근로 인민의 리익과 의지를 대표하며 그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우리는 당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대중을 명령하며 호령하며 그의 집행을 강요할 하등의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우리가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 그들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아픈 점, 곤난한 점을 제때에 알아 주고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당 정책을 해설하여 납득시킬 때에만 대중은 진심으로 당을 따라 올 것이며 당 앞에 제기된 그 어떤 혁명 과업도 그들의 힘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당원들이 군중 속에서 혁명 투쟁의 기수가 되며 군중에 대해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우리 당원들은 항일 유격 투쟁 시기에 지휘관이 자기는 먹지 않고도 대원을 먹이고 전투에서는 앞장 선 것처럼 대중을 사랑하는 고상한 정신을 체득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고 어려운 때에는 먼저 나가며 좋은 것은 남에게 주면서 일에서나 학습에서 항상 선봉이 되여 그들을 혁명 과업 수행에로 이끌어 나가는 것, 우리는 이 고상한 혁명가적 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실속 있게 사업하는 태도

우리 당원들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가 다 혁명 앞에서 일정한 사업을 분담하고 있다.

모든 당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은바 사업들을 실속 있게 해 나간다면 혁명은 성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일을 실속 있게 한다는 것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실질적으로 혁명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자면 걸치레를 하거나

일을 거칠게 하는 형식주의를 없애고 당 정책 집행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주밀하게 조직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떤 일'군들은 일에 깊이 파고 들지 않으며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지 않고 하부 지도는 유람식으로 하면서 모든 조건들에 대한 정확한 타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대강대강 일하고 있다. 그들은 형식만 차리면서 기분주의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사업에 적지 않은 혼란을 준다.

형식주의, 공명주의, 허풍치기는 엄밀하게 변증법적 방법으로 사고하며 행동하는 혁명가적 품성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다.

혁명가들은 사업을 실속 있게 하자면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의 본질적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현실에 깊이 파고 들며 대중과 긴밀하게 접촉하여 부단히 변화하는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객관적 조건들, 구체적 력량을 세밀하게 타산하여 문제 해결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 잡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 변증법적 사업 방법의 기본 요구이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 모든 단위에는 호상 련관된 허다한 과제들이 중첩되여 있으며 또 꼬리를 물고 새로운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당 정책의 요구를 반드시 본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배우고,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구체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배워서 매개 경우에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며》 어느 고리에 공격을 집중할 것인가를 판단할 줄 알게 된다면 백전 백승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전체 당원들은, 그가 더 높은 직위에서 사업하면 할수록 더 큰 책임성을 가지고, 사업에서 형식주의, 주관주의를 퇴치하고 무조건적으로 성과를 확보하며 인민에게 리익을 주도록 노력하는 혁명가적 품성을 확고하게 배양할 것이다.

낡은 것을 반대하고 새것에 민감하며 꾸준히 학습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사상

맑스주의자는 원래 부단 혁명론자이다. 달성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쟁취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부단히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만에 고유한 품성이다.

레닌은 승리 후의 동지들의 자만을 경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첫째는——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뽐내지 말 것, 둘째는——자기의 승리를 공고히 할 것, 세째는——적을 격멸할 것이다. 왜냐 하면 적은 다만 격파되였을 뿐이고 아직 결코 격멸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속 혁신하고 부단히 전진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한 가지 혁명 과업을 수행하고 그에 만족할 수는 없으며 계속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해결하여 나가야 한다.

금년도 완충기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면 사회주의의 새롭고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할 제 2차 5개년 계획의 큰 과업이 나선다. 우리에게는 달성한 성과에 비해 앞으로 해야 할 혁명 과업은 더 많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현재의 성과에 자만할 근거를 주지 않는다.

부단히 전진하고 계속 혁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부시게 변화 발전하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고 있는 새것에 민감하고 그를 적극 지지 옹호하며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낡은 것을 반대하여 투쟁할 줄 아는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진행하는 혁명은 온갖 낡은 것을 분쇄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새것과 낡은 것, 진보와 보수, 긍정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과의 투쟁, 이 투쟁에서 새것, 진보, 긍정적인 것의 승리만이 우리의 계속 혁신과 계속 전진을 보장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혁명 투쟁의 기본 내용이다.

우리 생활에서 새것과 낡은 것, 진보와 보수와의 투쟁은 비판과 자기 비판의 형태로서 진행된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사람이 세수하면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사업과 생활에서도 항상 비판이 있어야 부패한 것이 청산되고 새것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건전한 비판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결함이 제때에 적발 시정되고 빠른 전진이 이루어진다.

특히 오늘 비판을 강화함으로써 혁명 동지들 간의 원칙적 단결을 강화하는 문제는 우리의 전진 속도를 빠르게 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일부 당원들은 아직도 동지의 결함을 알면서도 정당하게 비판해 주지 않으며 또는 동지들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사소한 결함을 과장하거나 결함을 한 보따리씩 모아 두었다가 한바탕 《공격》하군 하는 식으로 비판의 무기를 옳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혁명 동지들 간의 단결을 약화시키며 사업을 개진하는 데 손해를 준다.

비판은 또한 혁명가들 자신을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로도 된다. 당원들이 자아 비판에 충실하며 자기 결함을 대담하게 내놓고 동지들의 충고를 허심하게 받아 들여 시정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는 자기가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으며 그 자신을 보다 훌륭한 공산주의 투사로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의 발전을 계속 촉진시키며 새로운 전진을 이룩함에 있어서 오늘 결정적인 것은 사회 발전의 운전수인 우리들의 능력을 높이는 문제이다.

우리들이 더 능숙하게 잘 운전할 줄 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곧바른 길로 전진할 것이다.

부단히 학습하지 않고는 자기의 능력을 높일 수 없다. 학습에서 기본적인 것은 당 정책 학습이다. 우리 당 정책은 조선 현실에 적용한 맑스—레닌주의로서 우리 혁명 발전의 가장 곧바른 길을 가리켜 준다. 당 정책은 우리의 모든 사업 부문에서 제기되는 과업들과 그 해결 방도를 명시해 주고 있다.

조선 로동당원이 우리 당 정책에 정통함이 없이는 우리 혁명을 일보도 전진시킬 수 없다.

특히 우리는 학습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혁명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혁명가는 일생을 두고 학습해야 한다. 진지하고 꾸준하게 학습해야 하며 학습을 생활화해야 한다. 혁명가와 학습을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동지들로부터 배우고 군중에게서 배우고 일하면서도 배우고 부단히 학습하는 것 이것은 혁명가들이 가져야 할 고귀한 품성의 하나이다.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의 소유자

로동당원들은 혁명적 실천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 생활에서도 대중의 모범이 되여야 한다. 이것은 대중 속에서 우리 당의 위신과 권위를 높이며 대중을 당 주위에 집결시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궐기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공산주의자들은 일을 안 하고 남의 등을 긁어 먹고 사는 자들의 세상을 뒤집어 엎기 위해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로동을 사랑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재능과 힘을 발휘하는 것을 더 없는 영예로 생각한다. 로동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모든 부를 창조한다.

로동을 기피하거나 전달을 부리며 로동에서 귀천을 가리며 육체 로동을 천시하는 것은 본질에서 착취 계급의 사상이다.

로동은 일찌기 인간을 창조하였다면 오늘에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창조한다. 로동을 통해서만 우리는 낡은 부르죠아 사회로부터 물려받은 일체 사상적 오물들을 청산하고 새형의 인간, 진정으로 로동을 사랑하며 개인을 집단에 복종시킬 줄 알며 군중 관점이 확고히 선

인간으로 개조될 수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전체 간부들과 일'군들을 생산 로동에 참가하게 하는 조치는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당원들은 로동을 사랑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일을 가장 잘 할 줄 알아야 한다. 분초를 다투어 가면서 기술을 련마하며 선진 작업 방법을 도입하며 창의 고안 운동을 전개하며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백방으로 제고하는 것——바로 이것이 공산주의 도덕을 소유한 새로운 인간들의 자기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다.

로동당원들은 새로운 집단주의 도덕의 승리를 위한 투사이다. 제 것이 아니라 하여 국가 재산이나 공동 소유를 아낄 줄 모르는 저주로운 태도와는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절약과 공동 재산 애호의 선두에 서야 한다.

우리는 사업에서나 생활에서 언제나 서로 협력하며 방조하며 자신의 행동을 공동의 리익에 일치시키며 복종시키는 데 관습되여야 한다.

특히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과 단결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그들은 동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동지의 결함을 묵과하지 않고 비판하며 비판한 다음에는 계속 교양을 주어 동지를 개조하여 나간다.

우리 당원들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보다 우의적인 높은 단계로 제고하며 동지애의 고상한 태도를 배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일상 생활에서는 례절 바르며 웃사람을 존대하고 녀성들을 존중하며 부모 처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생활을 사랑하며 그것을 아름답고 알뜰하게 꾸릴 줄 안다.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 하면 근로자들의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 아름다운 생활을 위하여 그들은 평생을 두고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기 때문이다.

* *

공산주의자들은 오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한 래일을 위해 사는 락천적인 사람들이다. 래일에는 이 땅 우에 공산주의가 꽃필 것이며 우리의 후대들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혁명 선배들을 존경하고 따르듯이 우리를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그런데 래일이란 바로 오늘의 연장이며 오늘의 구체적 생활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을 깨끗하게, 견실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혁명에 바쳐 싸우며, 일상 생활과 사업에서 철저하게 청렴하고 결백하며 동지와 벗을 사랑하고 적을 증오하며 항상 겸손하고 소박한 기풍을 확립하는 것——이것은 래일을 사랑하는 혁명 투사들의 오늘의 견실한 생활 태도이다.

혁명가적 품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실천 행정에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개조하여 나아가되 실천 투쟁에서의 단련과 사상 수양을 옳게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서 매개 당원들이 당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당 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매개 당원들이 일상 생활에서 당 규약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원들은 당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가함으로써만 일상적인 혁명적 실천을 통하여 부단히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수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의 사상 관점상, 사업 방법상 약점들을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으며 자기의 혁명가적 품성을 부단히 제고할 수 있다.

우리 로동당원들은 자기를 개조하는 데 대담하며 자기를 부단히 단련하고 수양하여 혁명 선배들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됨으로써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을 정확히 관철시키고 혁명 승리를 촉진시켜야 한다.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의 역할

조 재 선

I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의 근로자들의 의식의 역할에 관한 문제는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가 제기하고 정식화한 중요한 리론적 명제의 하나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싸우려는 로동자들의 고상한 사상이다》(《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이 교시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서 근로자들의 의식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에 대하여 명백한 해명을 주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있어서 생산의 기술적 장비의 강화, 로력의 합리적 조직,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제고 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을 강조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의 요인만 강조하고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식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보지 못한다면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따라서 생산력 발전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가질 수 없으며 더구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인 발전을 정당하게 리해할 수 없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의 전 력사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로동을 해방하는 데 있다. 《몇 세기 동안이나 남을 위하여 로동하고 착취자를 위하여 강제 로동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를 위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과 문화의 모든 성과에 립각하여 일할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레닌 전집, 제 26권, 조선문 판, 501페지).

로동력이 착취의 대상으로 되여 있는 착취자적 사회에 있어서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이나 일반적으로 생산력 발전에서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의 역할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이 생산력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는 조건은 로동이 해방된 사회주의 사회에 와서 비로소 조성된다.

해방 후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 로동이 전적으로 근로자들 자신과 전체 사회를 위한 로동, 선진 과학 기술의 성과에 의거하는 로동으로 되였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근로자들의 정치적 각오 정도가 높고 로동에 대한 자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로동 생산 능률은 제고된다.

우리 당은 일관하여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도로 되는 혁명적 열의에 튼튼히 의거하여 그를 최대한 계발시키는 데서 거대한 경제적 가능성을 동원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기초하여 언제나 대담하게 과업을 내세우고 그의 실천을

보장함으로써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의 근로자들의 의식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명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에 걸친 당과 인민의 력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김 일성 동지의 이 명제는 비단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관한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근본적 립장과 방침——경제 건설과 사상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을 천명한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은 비상히 높은 속도에 의하여 특징 지어진다. 전후 불과 6~7년 간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가 완전히 승리하였으며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으로의 전환이 실현되였다.

이러한 성과는 첫째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정책과 지도가 정확하였으며, 둘째로 우리 인민의 혁명성이 강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발성을 옳게 동원하는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가 보장되였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은 생산력 발전 수준이 매우 낮고 인민 생활이 극도로 령락된 조건하에서 시작되였다. 과거에 락후하였던 우리 나라는 미제에 의하여 도발된 3년간의 전쟁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이 여지없이 파괴되였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국토를 량단시킨 미제는 계속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인민 앞에 원래 락후했던 경제와 빈궁했던 생활에서 하루바삐 벗어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앞당기기 위하여 가장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절실한 요구를 제기한다. 우리 인민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것을 절실히 념원하고 있다.

《… 우리는 비록 옷은 허술하게 입고 집은 오막살이에서 살아 왔지만 우리의 사상은 남만 못지 않게 진보적이며 빨리 나아가겠다는 각오가 남보다 더욱 높으며 낡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혁명적 기질이 아주 풍부하다》(김 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우리 인민의 이와 같은 혁명성은 우리 당의 옳바른 령도와 결합됨으로써 위대한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도 복잡한 과제들을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의 하나로 되였다.

조선 인민의 높은 혁명적 의식은 해방과 함께 터진 화산과 같이 폭발되여 당의 령도하에 북반부에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민주 혁명 과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가 시작되던 때에 우리 당은 대중들 속에서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혁명적, 애국주의적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전 인민적 건국 사상 총 동원 운동을 조직 전개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은 조국 해방 전쟁의 가렬한 환경에서도 우리 인민이 조국의 자유 독립과 사회주의의 위업을 영예롭게 고수할 수 있게 하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시기에 당은 경제 발전의 기본 로선을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 및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우리 당은 전후 복구 건설 시기의 곤난한 조건하에서 일찌기 그 어디에서도 해 본 일이 없었던 이 경제 건설의 총 로선을 규정함에 있어서도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형제 국가들의 원조 등 조건들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조건으로서 우리 인민의 높은 애국적 열의와 정치적 각성을 타산하였던 것이다.

당시 김 일성 동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과업들을 능히 성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 인민은 파괴된 인민 경제를 하루속히 복구 건설하여 자기의 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고상한 애국주의적 열의와 결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인민에게는 전쟁 전 5개년 간의 민주 건설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과 전쟁 3년간에 시련된 강인성과 인내성과 헌신적 로력의 경험이 있다…》(《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311~312페지).

전후 년간 우리 나라에서의 경제 발전과 모든 정세의 변천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예견성과 현명성을 확고하게 실증하여 주었다.

우리 당은 대중에 대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물질적 복리를 증진시키며 문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뗄 수 없는 정치 사업의 내용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정전 직후에 전후 복구 건설의 기본 로선을 제시하면서 로동 계급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강조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에서 시작하여 력사적인 우리 당 제 3차 대회와 1956년 8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및 제 1차 당 대표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당의 주요 회의들과 조치들이 잘 말하여 준다.

이와 같은 정치 사업을 통하여 고도로 앙양된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 각성에 의거함으로써만 우리 당은 국제 국내적으로 중첩된 애로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전후 복구 건설의 방대한 과업들을 불과 3년이란 짧은 시일에 성과 있게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며 제 1차 5개년 계획을 2년 반이나 앞당겨 완수하는 기적을 낳게 할 수 있었다.

참으로 당의 령도하에 대중 속에서 광범히 전개된 사상 투쟁과 그들의 비상한 정치적 앙양을 떠나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리해할 수 없다.

대중의 혁명적 사상 의식은 사회의 전진을 가로 막는 일체 낡은 사상 잔재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그리고 혁명 과업 해결을 위한 실천 행정에서만 제고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

혁명은 인민 대중의 사업이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의거하여 우리 당은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자기의 지도 사업을 부단히 개선 강화하였으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제고시키기 위하여 그들 속에서 강력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게 하였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대중 속에서 광범히 전개된 사상 투쟁은 우리 나라의 로동 운동에서 력사적으로 되는 주요한 부르죠아 사상 조류인 종파주의와 그 여독을 근절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대고조를 이룩하게 한 직접적인 중요한 요인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와 같은 사상 투쟁에서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주되는 력량을 경제 건설에 돌려야 하며 사상 투쟁을 경제 건설과 결부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에 기초하여 근로자들 속에서 전개되는 사상 투쟁을 증산 투쟁의 불'길과 밀접히 결부시켰다. 1956년 12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호소한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은 인민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억제하는 소극 분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사상 투쟁을 동반하였다. 소극성을 반대하는 투쟁은 혁명에 대한 대중의 적극성을 고도로 발동시켰으며 낡은 것에 매달리는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은 비약적 발전을 지향하는 대중의 새로운 창발성을 발동시켰다. 1957년 이후 3년 간을 두고 계속되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는 대중의 의식 발전과 우리 경제 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특징지어 주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대중들 속에서 혁명적 앙양이 시작되였을 때에 때를 놓치지 말고 대중의 혁명 기세를 조직하여야 하며 당면한 제 과업의 해결 뿐만 아니라 이 과업들의 해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목적까지도 똑똑히 인식할 수 있도록 대중들 앞에 투쟁의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대중 운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은 항상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제때에 포착하여 가장 적극적이고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실천적 과업들을 지체 없이 제기함으로써 부단한 전진과 계속 혁신의 길로 그들을 동원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대중에 대한 령도의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였다: 《대중의 뒤꼬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앞장에 서야 하며 대중의 모든 열성과 창발성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그들을 새로운 더욱 큰 승리에로 인도하여야 한다》(김 일성, 《모든 것을 조국의 통일 발전을 위하여》).

대중 지도에서의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민 대중은 혁명 시기에 있어서와 같이 그렇게 새 사회 제도의 능동적 창조자로 행동하는 일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혁명적 당의 지도자들도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임무를 일층 더 광범하게 또 대담하게 내세워야 할 것이요 그들의 구호가 언제나 대중의 혁명적 독자적 활동을 앞서 나아가 대중의 혁명적 독자적 활동의 등대가 되며 우리의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리상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게 뵈여 주며 무조건적이며 결정적인 완전 승리로 향하는 가장 가깝고 가장 곧바른 길을 뵈여 주어야 할 것이다》(레닌 전집, 제 9권 1분책, 조선문 판. 171~172페지).

우리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 행정에서 비상히 제고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공화국 창건 10주년에 제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지향하는 웅대한 전망 과업을 대담하게 제시하였다. 이 강령적 과업의 제시는 대중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을 더한층 앙양시키며 그들에게 더욱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승리의 신심을 고취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였다. 이어서 1958년 9월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전체 당원들에게 붉은 편지를 보내여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자들을 더한층 고무 추동하였다.

이 전망 과업과 붉은 편지는 근로자들 속에서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며 일체 낡은 것을 반대하는 투쟁에 과감하게 나서는 공산주의적 혁명 기풍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놀았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는 한 계단 더 높은 발전을 가져 오게 되였으며 근로자들은 산을 가르고 바다를 막는 위력을 더욱 유감 없이 발휘하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력사적 경험은 당의 정확한 령도와 결합된 대중의 높은 의식이 생산력 발전에서 노는 결정적인 역할을 남김 없이 확증하여 주었다.

이 경험을 정확히 총화하고 당면한 완충기의 과업 수행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의 새로운 고지를 점령하게 될 제 2차 5개년 계획의 준비에 살리도록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여 준 것——바로 여기에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의 근로자들의 의식의 역할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Ⅱ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론에서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우리 나라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하여서도 명백한 해명을 주었다.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담보는 자본주의에 비하여 보다 높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하는 데 있는바 우리 사회의 지배적 사상인 공산주의 사상 의식은 이러한 사회의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달성하는 데 복무한다.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신심, 적들에 대한 비타협적 투쟁 정신, 로동에 대한 사랑과 집단주의 사상, 부단히 전진하고 계속 혁신하는 혁명적 사상,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국제주의, 공산주의적 도덕 등 새로운 인간의 도덕적 풍모를 특징 짓는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서 더욱더 강화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높은 공산주의 사상 의식은 장기간 경제적으로 락후한 처지에서 고통을 받아 온 우리 인민들이 《잘 살기 위하여, 남만 못 하지 않게 살기 위하여 달려 나가며 달려 나가도 부족해서 더 빨리 달려 나가는》(김 일성) 높은 혁명적 열의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바로 이러한 높은 혁명적 열의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용감성과 강인성을 가지고 모든 곤난과 난관을 뚫고 나아가게 한다. 이는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몇 배로 증대시키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기 위하여 창발적 열성과 재능을 발휘케 함으로써 그리고 절약 제도의 강화와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을 강화케 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에서 큰 역할을 논다.

김 일성 동지는 이렇게 교시하였다: 《생산력은 비유해 말하자면 군대의 무장력과 같다. 생산에 있어서 인간의 정복 대상이 자연이라고 하면 전쟁에 있어서 군대의 정복 대상은 적의 력량이다.…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무기도 물론 좋아야 하지만 전투 의식, 사상 의식이 높고 기술 수준이 높아야 한다. 특히 사상 의식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제기되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군대에 있어서 높은 사기는 곤난을 극복하고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리용하여 전투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동일한 무기와 동일한 기술을 가진 군대들에 있어서도 사기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 판이한 전투 결과를 내게 한다. 뿐더러 일정한 시기에는 최소 한도의 기술적 가능성만 있다면 사기가 높고 기술이 렬세한 군대가 사기가 낮고 기술이 우세한 군대보다 더 강하며 능히 적을 격파하는 것이다.

생산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동일한 육체적 힘과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생산 도구와 생산 수단을 리용하는 경우에라도 사람의 의식 상태 여하에 따라 어떤 사람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와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고무된 근로자들은 높은 혁명적 열성을 발휘하여 기술 문제를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낡은 공칭 능력을 타파하고 수 많은 기술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비약적으로 제고시키는 기적을 낳았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첫 3년 간에만 하여도 공업 부문에서 근로자들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제안은 10만 건을 훨씬 넘었는데 그 중에서 생산에 도입된 건수는 근 3만 9,000건에 달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는 기술을 신비화하는 것도 나쁘지만 기술을 홀시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중히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높은 혁명 의식은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 곤난과 난관들을 타개하며 지혜와 재능을 다하여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을 촉진시키는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기술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로동자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는 발전된 기술에 의하여 안받침되는 경우에라야만 실현될 수 있으며 그의 혁신적 역할이 지속될 수 있다.

오늘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여 나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에는 실로 기술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이 조성되여 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 의식은 선진적인 생산 도구와 생산 수단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높은 기능을 소유하도록 근로자들을 자극하며 동지적 협조와 집체적 연구, 사회주의적 로동 규률을 강화하도록 그들을 추동함으로써 이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로 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 의식이 기능 수준 제고를 통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사회의 보다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하는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현 시기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이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이 높아지면 그들은 자기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더 노력할 것이며 생산 장성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더 많은 창발성과 열성과 재능을 발휘할 것이다》 (우와 같은 문헌)라고 교시하였다.

근로자들의 높은 의식은 사회주의 생산에 잠재하는 무궁무진한 생산 발전의 예비들을 탐구 개발하며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도 생산력 발전을 촉진시킨다. 우리 나라에는 실로 방대한 생산 장성의 예비와 가능성들이 있다. 전 인민적 소유로 된 풍부한 자연 부원과 유리한 자연 조건들, 전후 기간에 새 기술에 의하여 개건 신설된 수다한 공업 기업소들과 생산 설비들, 쏘련을 선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과학 및 기술 발전 성과의 도입, 이 모든 것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혁명적 의식과 옳게 결합될 때 생산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게 되리라는 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 나라의 천리마 대진군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높은 창의 창발성에 의하여 적발되였고 생산에 도입된 수다한 생산 장성의 예비들과 단 1년 동안에 1,000 여개의 지방 산업 공장들을 낳게 한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의 경험, 또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불과 1년을 넘지 못하는 기간에 계획 외에 1만 3,000 여대의 공작 기계를 낳게 한 공작 기계 새끼 치기 운동의 경험 등이 잘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제고하는 것은 직접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생산의 장성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담보로 되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 각성과 열성은 또한 사회적 소유와 사회의 생산물을 애호하며 최대한으로 유용하게 쓰는 절약 제도의 강화에서 표현된다.

일하는 사람이 사회의 재산을 애호하며 사회를 위하여 애써 많은 것을 내여 놓으려는 열성과 창발성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절약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요구이다. 일찌기 레닌은 공산주의가 사회 전체를 위하여 차례지는 생산물들을 한 그람이라도 절약하며 애호하려는 보통 로동자들의 배려가 나타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다(레닌 전집, 제 29권, 조선문 판, 512~513페지 참조).

절약 제도는 생산 수단의 소비를 적게 하고 많은 생산물을 내게 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동일한 로력과 생산 수단을 소비하고서도 보다 높은 질을 가진 제품을 생산케 한다.

제품의 질은 무엇보다도 로동자들의 사상 의식과 기술 기능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에 있어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들든지 다 알뜰하고 실속 있게 하려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지성이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도 결국은 사상 투쟁이며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로, 인민에 대한 복무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사업과 떼여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교시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들의 높은 사상 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생산력 요소들을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높은 창발성과 재능을 발휘케 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서의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의 역할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는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도 정치 사업을 선행해야 할 실천적 문제를 제기한다. 그것은 근로자들의 높은 의식, 그들의 창조적 적극성은 사회주의 제도하에 있어서도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의 령도하에서 제고되고 계발되는바 이것은 바로 정치 사업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시종일관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리고 있으며 계속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12월 확대 전원 회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요컨대 지휘관들은 정치 사업을 잘하여 로동자들의 정치적 각성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자각적으로 일하도록 하며 다음으로는 설비 부속품, 원료 기타 사업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며 또한 로동자들의 생활 조건을 일상적으로 돌보아 주고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 사업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새 사회 건설에 대한 더 높은 정열과 공산주의의 위대한 리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전진 운동을 더욱 빨리 추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업을 약화시키려는 그 어떤 표현도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근로자들의 물질적 리익에 대한 관심을 홀시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레닌은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정의 방조하에 근로자들의 물질적 관심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쳤다.

근로자들의 높은 열정만 믿고 물질적 관심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단계에서의 생산력과 근로자들의 의식의 발전 수준을 무시하며 로동에 의한 분배의 객관적 요구를 위반하게 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저애하게 한다. 반면에 물질적 관심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을 차요시하여서도 안 된다. 물질적 관심의 원칙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정치 사업과 밀접히 결합되여야 한다. 정치 사업을 떠나서 물질적 관심성만 강조하면 근로자들의 혁명적 적극성이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다.

정치 사업을 통한 근로자들의 의식성의 부단한 제고, 이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가장 믿음직한 담보이다.

레닌 탄생 90주년을 맞이하여

웨. 이. 레닌과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

김 경 인

금년 4월 22일에 조선 인민은 전 세계의 진보적 인류와 함께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대한 수령이며 스승인 웨. 이. 레닌 탄생 90주년을 맞이한다.

레닌의 이름은 위대한 10월 혁명의 포성과 함께 조선 인민의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졌으며 자유와 행복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고무 추동하는 기치로 되였다.

그리하여 레닌의 탄생일을 경축하는 것은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일찍부터 전통적인 것으로 되여 왔다. 1920년 우리 나라의 선진적 인사들은 레닌 탄생 50주년에 제하여 그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당시 비합법적인 한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로씨야 공산당은 붉은 기치를 들어 전제 정치를 전복하고 인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실시하며 각 민족에 대하여 자유와 자결을 선포하였다. 이것이 세계 개조의 기원의 시초로 되였다… 그런데 공산당의 기본 주지(主旨)가 한 국가 한 민족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전 지구상의 인류를 대동(大同) 평등에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으므로 그들은 우리 민족이 남에게 구속 당하고 있는 것을 동정하며 그 해방의 길을 열어 주는 데 성의를 가지고 있다. 금년 4월 22일은 레닌의 탄생 50주년이다. 우리 나라 로동자 대표는 중국 일본 대표와 더불어 같이 축하를 드리였다…》 (박 은식, 《한국 독립 운동지 혈사》).

레닌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조선 인민은 레닌의 이름과 그 학설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자신의 오랜 투쟁과 생활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맑스주의 발전에서의 웨. 이. 레닌의 가장 거대한 공헌의 하나는 민족—식민지 문제 해결에 대한 전면적이고 새로운 리론을 작성하였다는 데 있다.

웨. 이. 레닌은 맑스주의를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제국주의 단계에 적응하게 프로레타리아 혁명 리론을 더욱 발전시켰고 풍부화하였다. 이 프로레타리아 혁명 리론의 불가결의 주요한 구성 부분의 하나로 되는 것은 바로 식민지 민족 혁명에 대한 리론이다.

웨. 이. 레닌은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 서면서 민족 문제 해결의 중심은 동방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동방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이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동방 인민들의 투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그들의 정치적 장성에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1913년에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아세아에서는 도처에서 강력한 민주주의 운동이 장성하며 확대되며 강화되고 있다… 수억만 사람들이 생활과 광명과 자유를 향하여 **각성**하고 있다. 집단주의로 가는 길이 민주주의를 거쳐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의식적 로동자들의 심장 속에서 이 세계적 운동은 얼마나 큰 환희를 일으키고 있는가!》 (전집, 제 19권, 조선문 판, 97페지).

레닌의 위대한 공헌은 동방 인민들의 정치

적 각성과 민족 해방 투쟁의 력사적 의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론증하였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 인민들의 투쟁 방도를 천명한 데도 있다.

레닌은 구라파의 로동 운동의 경험에 주로 의거하여 확립된 공산주의의 일반적 리론을, 그것과는 다른 조건에 처한 동방 인민들의 투쟁에 적용하는 어려운 과업이 동방 공산주의자들 앞에 나선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다. 레닌은 동방 인민의 투쟁에서는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기백만 분산된 농민들을 어떻게 제국주의와 중세기적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였다.

동시에 레닌은 동방 제 국에서 비록 청소할지라도 로동 계급이 있는 곳에서는 로동 계급이 이 투쟁의 선두에 서야 하며 자기의 주위에 농민 대중과 더불어 일체 반제 반봉건적 각 계층들을 결속시켜야 하며 또 결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최근 수십년 간의 아세아의 제 사변들은 레닌의 이와 같은 교시의 정확성을 론박할 수 없이 실증하였다.

레닌의 학설을 따라 중국 령토에서 위대한 혁명이 성취되였으며 조선과 월남 등 아세아의 제 국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였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기타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로동 계급과 그의 레닌적 당들이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광범한 인민 대중의 선두에 서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세계 인구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아세아 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의 길을 밝혀 준 것은 바로 레닌의 위대한 학설이다.

웨. 이. 레닌은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끊임없는 주의를 돌리였으며 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친 모든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불타는 분노로써 규탄하면서 결정적으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나섰다.

웨. 이. 레닌은 20세기 초에 있어서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 특히는 조선의 강점과 중국의 분할을 주요 목적으로 한 로일 전쟁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짜리즘이 실시한 정책의 침략적 본질을 전면적으로 폭로하였다. 그는 짜리즘이 한 줌도 못 되는 자본가 집단을 위하여 인민의 고혈을 짜서 얻은 재부를 《…조선에서의 혹은 압록강에서의… 모험과 강탈에 지출》하는 범죄적 행동에 대하여 무자비하게 규탄하였다. 미국 통치 집단의 원조하에 조선이 일제의 통감 밑에 들어 갔을 때에 웨. 이. 레닌은 일제를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악랄성의 대표적인 것으로 《제국주의 노트》에 적기하였다.

1910년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였을 때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모든 종류의 합병을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조선 인민의 완전한 자결권을 결정적으로 옹호하여 나선 것도 레닌과 로씨야의 볼쉐위크들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민족의 독립을 옹호하는 레닌의 사상은 쏘베트 정권의 수립과 함께 지체 없이 국가적 정책으로서 실천에 옮기여졌다.

10월 혁명이 승리한 첫날인 1917년 11월 8일 제 2차 전로 쏘베트 대회에서 채택된 쏘베트 정권의 최초의 법령——《평화에 관한 법령》에 기초하여 동방 제 국의 분할과 예속화에 관한 짜리 정부와 림시 정부의 모든 조약들이 폐기되였으며 짜리 로씨야가 일제의 조선 강점을 승인하였던 1907년 로일 비밀 협약을 주저 없이 세상에 공개하고 그를 즉시 페기하였다. 1918년 1월 웨. 이. 레닌에 의하여 기초된 《피착취 근로 인민의 권리 선언》에서는 쏘베트 정권이 《…아세아, 일반적으로 식민지 및 약소 국가들의 수억만 근로 주민을 노예화함으로써 소수의 선발된 민족의 착취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 부르죠아 문명의 야만 정책을 완전히 페기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와 같이 쏘베트 정권이 수립된 때로부터 자유와 독립에 대한 조선 인민의 념원은 레닌적 정책을 통하여 실현되는 쏘베트 국가의 강력한 정치 도덕적 지지를 받게 되였으며 조선 인민은 이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하였다.

로씨야 인민과 함께 일본 간섭자를 반대하여 싸운 연해주 지방의 조선 빨찌산들은 《…위대한 쏘베트 공화국은 모든 약소 인민들과 예속 국가 인민들의 벗이며 강력한 동맹자이다… 근로자들의 벗이며 수령인 위대한 공산당 만세! 로씨야 공화국 만세!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 만세!》의 구호를 높이 들었다(《10월 혁명과 극동에서의 국내 운동》, 모쓰크바, 1933년, 304페지).

웨. 이. 레닌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게 된 조선 인민의 정당한 념원을 반영하면서 조선에서 일본 강점자들을 조속히 물러 가게 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부합되는 로동 계급의 당의 정책으로 된다고 강조하였으며 급속히 발전한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계속 주시하였다.

군사 봉건적 제국주의로서의 일제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에 있어서 기존의 모든 악독한 중세기적 착취와 억압의 방법들을 보존하면서 전례 없이 가혹한 식민지적 략탈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은 최신의 모든 기술적 발명과 순전히 아세아적인 고문과를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수적 방법으로 조선을 략탈하고 있다》(전집, 제 31권, 조선문 판, 544페지).

이와 같은 형편에서 우리 인민 대중은 일제를 반대하여 완강히 항거하여 나섰으며 각지에서는 의병 운동이 광범히 일어났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로씨야에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하였다. 이 위대한 세계사적 사변이 조선 인민의 투쟁을 어떻게 고무 추동하였는가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1919년에 일제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3.1 봉기가 일어났는바 이는 10월 혁명의 직접적 영향하에 피압박 피착취 대중이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운 동방에서의 강력한 혁명적 진출의 하나였다.

그러나 전 인민적 3.1 봉기는 일제의 야만적 탄압과 이 투쟁의 지도자로 자처하여 나섰던, 부르죠아 민족주의자들의 상층부의 타협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났다.

웨. 이. 레닌은, 이 시기에 조선을 포함한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에서의 인민들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이 투쟁 경험들을 일반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원칙적인 교시를 주었다:

《종국적 승리의 담보로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조직성과 규률과 견결성 그리고 전 세계 근로자들과의 련대성입니다… 인도, 중국, 조선, 일본, 페르샤, 토이기의 로동자, 농민이 서로 손을 맞잡고 공동의 해방 사업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오직 그 때에야만 비로소 착취자들에 대한 결정적 승리가 보장될 것입니다》(전집, 제 31권, 조선문 판, 156페지).

레닌주의는, 조선 인민의 미래는 민족 해방 투쟁에서의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에 의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는 사상으로써 조선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무장시켰다.

* *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선두에는 로동 계급이 등장하게 되였다. 조선 로동 계급은 비록 청소하였으나 일제의 산업 독점 정책으로 인하여 조선 산업의 부수적인 극소 부문만을 장악하고 있던 조선인 부르죠아지에 비하여 훨씬 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부르죠아 민족주의 세력의 상층부는 점차 일제와 타협하는 길로 나아갔으며 반면에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급속히 보급됨에 따라 공산주의자들이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적 세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레닌의 혁명 리론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식민지 나라들에서 계급 투쟁과 민족 해방 운동을 결합시킬 데 대한 그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썼다.

이리하여 레닌주의에 의하여 교양된 공산주의자들의 첫 세대(비록 정치 사상적으로 미숙하였지만)가 자라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우수한 애국자들은 레닌의 학설을 심오하게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레닌의 교시들은 그들에게 있어 고무적 힘으로 되였으며 자기의 인민을 해방시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서 그들의 지침으로 되였다… 레닌의 학설과 해방 투쟁의 전략 및 전술의 기본 문제들에 대한 그의 강철같은 론리와 또한 그 학설의 정확성과 목적 지향성은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가슴 속에 생동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 학설의 수 많은 열렬한 신봉자들과 후계자들을 나오게 하였다》(《레닌의 학설은 우리의 지침이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근대적 로동 운동은 처음부터 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여 진행되였고 레닌의 지도하에 조직된 공산주의 인터나쇼날의 지도와 영향 밑에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는 제 2 인터나쇼날 계렬의 사회 민주주의의 조류는 처음부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때문에 레닌주의의 기치 밑에 공산당 창건을 위한 투쟁이 로동 계급의 정당 조직을 위한 유일한 흐름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1925년 4월에는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당시 공산당은 우리 나라 사회에서 가장 주목을 끈 정치적 력량으로 되였으며 이는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반일 혁명 투쟁 발전을 추동하였다. 우리 나라의 청소한 공산주의자들은 희생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투쟁은 일제의 극심한 탄압과 공산당 지도부에 앉아 있던 종파 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당의 조직적 통일을 저해한 종파 분자들의 분렬 행위는 당을 일제의 탄압 앞에서 무장 해제시켰고 결국 1928년에는 해산에로 이끌었다.

이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과 반일 민족 해방 투쟁 발전에서 큰 불행이고 손실이였으며, 종파 분자들은 조선 인민 앞에서 용서 받지 못할 엄중한 죄과를 범하였다.

그러나 공산당의 해산으로 인하여 전반적 공산주의 운동과 대중 운동 발전의 추세가 저지될 수는 없었다. 당시 로동자, 농민 속에서 대중적 투쟁은 계속 장성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 들어 가 혁명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있어서 조선 공산당 해산과 관련한 공산주의 인터나쇼날 집행 위원회의 결정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제 임무에 대하여》와 기타 국제 당 문헌들은 조선의 혁명적 로동자, 농민들, 공산주의자들에게 주요한 행동의 지침을 주었으며 크게 고무하였다.

때문에 일제의 야수적 탄압이 더욱 혹심해지는 조건에서도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는 대중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앙양된 기세로 진행되게 되였다.

조선에서 근대적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초기에 해당하는 1920년대에 혁명적 로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은 매우 간고한 투쟁 속에서 일정한 경험들을 쌓았으며 많은 실패들을 통하여 귀중한 교훈들을 얻게 되였다. 레닌주의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혁명 투쟁에서 구현되는 과정은 많은 우여곡절을 동반하게 되였던 것이다.

레닌주의가 우리 나라 민족 해방 운동과 완전히 결합된 것은 1930년대에 들어 서면서부터이다.

1930년대 이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의 모든 혁명 투쟁의 경험과 교훈을 살리면서 그리고 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들을 고수하며, 그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서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켰다.

1932년에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유격대가 조직되였고 무장 투쟁이 항일 민족 해방 투쟁의 주되는 중심적 투쟁 형태로 등장하였다.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상비적 군사력에 의거하는 무장 투쟁은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 발전의 합법칙적 산물이

였다.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의 모든 정세는 바로 조선 인민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이와 같은 투쟁을 진행해야 할 요구를 절박한 것으로 제기하였다. 이 시기에 일제는 심각한 경제 공황의 출로를 대륙에 대한 침략에서 찾았으며 이를 위하여 국내의 파쑈 제도를 발광적으로 강화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항거하여 조선의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도 더욱 전투성을 띠였다. 이 시기의 우리 나라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주요한 특성은 많은 대중적 파업 투쟁, 소작쟁의들이 폭동적 형태를 띠게 되였다는 데 있다.

1929년에 있은 원산 총 파업, 1930년에 있은 신흥 탄광 로동자들의 폭동과 평양 고무 공장 로동자들의 파업과 폭동, 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 들어 서면서 일어난 단천 농민들의 폭동을 비롯한 함경 남북도 각지에서의 농민 폭동, 동북 간도 지방의 추수 폭동, 춘황 폭동 등 조선 농민들의 계속적인 폭동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이 이 시기에 와서 새로운 투쟁 형태에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여 주었다.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바로 로동자, 농민 대중 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이 새로운 투쟁 형태의 발현들을 일반화하고 이에 조직성과 의식성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웨. 이. 레닌은 대중의 투쟁을 령도함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맑스주의는 극히 각이한 투쟁 형태들을 인정하며 더우기 이 형태들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동 과정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혁명적 계급의 투쟁 형태를 일반화하며 조직하며 그것에 의식성을 부여할 따름이다. 온갖 추상적 공식과 온갖 교조적 처방을 무조건하고 반대하는 맑스주의는 진행 중에 있는 대중의 투쟁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전집, 제 11권 1분책, 조선문 판, 316~317폐지).

레닌과 그의 교시에 충실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에 대중의 투쟁 속에서 나타난 폭동적 투쟁 형태가 비록 분산성과 자연 생장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여기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동자, 농민 투쟁 속에서 이 새로운 발현들을 일반화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상비적 군사력에 의한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조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써 조직된 항일 유격대는 당시 일제의 통치 기반이 가장 약한 곳이였으며 100 여만의 조선 사람들(이들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일제의 압박과 략탈에 의하여 령락되여 이주한 사람들이였다)이 거주하고 있었고 반일 기세로 충만되여 있었던 동만과 남만 일대에 근거지들을 두고 모든 간난신고를 극복하면서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장기간의 영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일제가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 전쟁을 진행하며 쏘련에 대한 군사적 침공 기도를 로골화하고 있던 시기에 더욱 치렬하게 더욱 대규모적으로 전개되였다. 항일 유격대는 일제의 비밀 문건에 기록된 수'자에 의하더라도 1939년 한 해 동안에만도 543회의 전투를 진행하였다.

1940년대에 와서 일제의 발악적 탄압이 가중하여 가는 암담한 시기에도 항일 유격대는 최후의 승리의 신심을 잃지 않고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마침내 위대한 쏘련 군대의 대일 참전과 함께 일제를 격멸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조국 해방을 성취하게 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반일 투쟁을 고무하고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었다. 항일 무장 투쟁은 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일제의 폭압이 감행되던 그 암담한 시기에도 반일 투쟁을 중단함이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항일 유격대와의 직접적 련계하에 또는 그의 영웅적 투쟁의 영향하에 혁

명적 토조 및 농조 운동을 비롯하여 로동자, 농민, 학생 등 광범한 애국적 력량들이 참가한 각종 형태의 투쟁이 진행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을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진출과 결합시키며 대중 단체들을 확대 강화하며, 각계 각층 모든 반일적 애국 세력을 반일 민족 통일 전선에 단합시키는 사업에 처음부터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투쟁에서 비록 일시적이고 불안정하고 견고치 못한 요소라 할지라도 인입할 수 있는 모든 력량을 최대한으로 인입하고 동맹하며 혹은 제휴해 나가야 한다는 레닌적 원칙을 고수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체 좌우경적 경향 특히 좌경적 편향들을 인내성 있게 극복하면서 모든 반일 군중은 물론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제에게 맹종하며 리용당하는 군중에 대해서도 교양 개조하는 공작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반일 세력과 련계하여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에 주력하였다. 당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체 좌경적 편향을 극복하는 것은 항일 무장 투쟁 발전의 필수적 조건이였는바 이는 특히 항일 무장 투쟁으로 하여금 고립된 투쟁으로가 아니라 대중적 투쟁으로 되게 하였던 것이다.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이 요구되였다. 그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반파쑈 인민 전선 전술에 관한 콤인테른의 결정을 접수한 후 각종 대중 단체들을 정비하고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조직을 갖추기에 전력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정당들의 련합 전선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 없는 조건을 타산하여 각계 각층의 애국적 단체들을 망라하며 애국적 인민을 개인 자격으로 망라시키는 방법으로 통일 전선 조직을 결성하고 확대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령도를 보장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1936년 5월 5일에는 민족 통일 전선 조직인 《조국 광복회》가 결성되였다.

조국 광복회는 조직 후 얼마 안 가서 그 산하에 20 여만의 회원을 망라하였으며 그의 조직망은 광범한 지역에 급속히 확대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인내성 있는 노력에 의하여 조국 광복회에는 반일적 민족주의자들과 종교인들까지도 적지 않게 망라되였다.

조국 광복회는 인민 대중의 각종 형태의 정치 경제적 투쟁을 항일 무장 투쟁과 련결시키며 조선 혁명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는 데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그가 인민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였으며,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항상 강화한 데 있었다.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유명한 구호는 유격대원들의 일상적인 행동 준칙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대중은 자기의 모든 력량과 수단을 다하여 이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던 것이다.

항일 유격대가 강대한 적을 대항하여 불패의 력량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은 또 하나의 원인은 레닌의 교시에 따라 그가 국제 혁명 세력에 튼튼히 의거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든 거기에 있다. 항일 유격대는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전 행정을 통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중국 인민과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공동 투쟁은 조 중 인민 간의 국제주의적 친선과 련대성의 전통을 이루어 놓았다.

레닌의 불패의 사상이 구현된 쏘련에서의 모든 성과들은 항일 유격대원들을 항상 고무하였으며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 주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쏘련을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임무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 행정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확고한 레닌주의적 지도 력량이 형성되였으며 이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준비가 이루어졌다.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 공산당이 해산된 후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은 매우 간고하였다.

모든 주객관적 조건들 특히 종파 분자들이 제각기 《당 재건》의 간판만을 요란스럽게 내걸고 실상은 당 재건을 위한 투쟁을 분렬시키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의 유일한 길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 속에 들어 가서 실지 투쟁을 통하여 조직—사상적 지반을 닦는 데 있었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무장 투쟁, 민족 통일 전선 운동 기타 각종 형식의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꾸리며, 종파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혁명 로선들을 작성하며 당 창건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기에 전력하였다. 이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은 철두철미 레닌적 당 조직 원칙과 당 생활 규범에 의거하였다.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이 레닌적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한 30년대 이후의 혁명적 실천은 레닌주의 사상의 힘과 생활력과 불패성을 명백하게 확증하였다. 백전백승의 레닌주의 기치를 추켜 세운 1930년대 이후의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된 전통은 조선 인민의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으로 되였다.

레닌의 사상과 학설이 붉은 실오리와도 같이 관통하고 있는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은 해방 후 조선 혁명의 승리적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였다.

레닌적 길을 따라 전진한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과 혁명적 성과들은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 해방 이후 로동 계급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으로 되고 통일적 맑스—레닌주의 당을 지체 없이 창설하고 이 당의 지도하에 당면한 혁명 과업들을 능숙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력사적 전제 조건으로 되였다.

※　　※

장기적이고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검열되고 세련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을 령도 핵심으로 하여 해방 후에 창건된 우리 당은 비록 력사는 청소하나 당 내외에서 원쑤들과의 가렬한 투쟁 속에 그리고 그의 전진을 가로 막는 갖은 난관과 애로를 극복하면서 확신성 있게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에로 인도하여 왔다.

해방 후 우리 당의 령도하에 조선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적 업적들은 우리 나라에서의 레닌의 위대한 사상의 새로운 승리이며 구현으로 된다.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때로부터 15년이 되는 오늘 우리 나라는 락후한 식민지로부터 자립적인 토대를 가진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다.

여기에서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와 복구 시기를 제외한다면 오늘의 성과는 불과 5~6년 동안에 이룩된 것으로 된다.

이미 1958년도에 우리 나라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의 소상품 생산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됨으로써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하게 지배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완전히 근절된 자유롭고 행복스러운 사회로 전변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수준도 급격히 향상되고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이 제기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구호에 호응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완성을 앞당기기 위하여 《천리마》 운동에 한결같이 일떠 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민족적 대번영은 우리 당이 레닌이 가르친 대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엄격히 의거하면서 우리 나라의 민족적 특성을 심중히 타산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한 결과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에로의 전례 없는 비약적 발전은 오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대외적 위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제고하였으며 남반부의 광범한 계층에게 심대한 혁명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반부의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빈궁과 무권리의 원인을 더욱 똑똑히 자각하게 되였으며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하게 진행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여 남반부 인민들도 북반부 인민과 함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먼 장래의 일이 아니다.

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되여 그의 령도하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조선 인민의 앞길을 가로 막을 그 어떠한 힘도 이 세상에 없다.

가장 고귀한 것

(엔. 까. 크룹쓰까야의 론문집 《레닌에 관하여》에서)

위대한 목적을 지향하는 마음

《우리 생활에서는 그의 생일을 맞이하면 그와 함께 어디라 없이 멀리 숲 속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이 어쩐지 습관처럼 되여 있었다. 이럴 때이면 그는 숲 속을 거닐면서 당시 그의 마음을 특별히 사로잡고 있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군 하였다. 봄날의 훈훈한 대기며 물기 오르는 숲이며 몽글몽글 망울진 아지마다의 햇싹들이며——이 모든 것은 유달리 가슴 속을 후련하게 하였고 뭇생각을 용솟음치게 하여 미래를 내다 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였다. 그 중에도 그가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나에게 한 이야기는 지금도 내 기억에 새롭다.

…그는 처음에는 목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니 우리가 숲속 깊숙히 들어갔을 때 문득 말을 끊었다가 이윽고——어떤 발명과 관련한——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이 이루어질 때 우리 나라의 방위력은 그 어떠한 침략자도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그는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이 부르죠아지의 수중에 있을 때 부르죠아지는 그것을 근로자들을 억누르는 데 리용하지만 그 정권이 일단 자각되고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의 수중에 넘어 오기만 하면 프로레타리아트는 그것을 온갖 착취를 근절하는 데 리용하며 또 온갖 전쟁을 영원히 소멸해 버리고야 말 것이라고 하였다. 일리이치는 거의 속삭이다 싶이 점점 더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마음 속 깊이 품고 있는 숙망, 가장 고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그리군 하였다》[1].

일리이치의 전우이고 안해이며 벗인 나제쥬다 꼰쓰딴찌노브나 크룹쓰까야가 일리이치를 회상하여 쓴 글들을 추려서 묶은 이 수수하면서도 생동한 내용을 담은 책 《레닌에 관하여》는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이 생애를 바쳐 그처럼 열정적으로 지향하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싸워 왔고 창조한 가장 고귀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이 누릴 휘황한 래일을 위한 원대한 투쟁에서 레닌이 향도성으로 삼아 온, 가장 인도주의적이며 장엄하고 아름다운 리상——그것은 바로 공산주의와 평화이다.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념원하여 온 레닌의 숙망은 위력한 나래를 가지고 있었고, 이 숙망은 과학적 사회주의의 반석같은 토대에 기초하고 있었다.

크룹쓰까야는 이렇게 썼다:

《일리이치가 걸어 온 생애를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며 그가 이룩하여 놓은 사업을 회고하여 볼 때면 그의 강령적인——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첫 로작들이 부지중 떠오르군 한다. 1894년에 집필되여 비합법적으로 출판된 <„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가 바로 이런 로작 중의 하나다. 뚜렷한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소책자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

[1] 엔. 까. 크룹쓰까야의 론문집, 《레닌에 관하여》, 쏘련 국립 정치 도서 출판사, 1960년판, 53~54페지. 여기에 수록된 인용문들은 이 론문집에서 발취한 것이다.

끝맺고 있다: <그의(로동 계급——크룹쓰까야 주) 선진적 대표들이 과학적 사회주의 사상, 로씨야 로동자의 력사적 역할에 관한 사상을 체득하며, 이 사상이 널리 보급되여 로동자들 속에서 오늘날의 분산된 로동자들의 경제 투쟁을 자각적인 계급 투쟁으로 전변시키는 공고한 조직들이 나오게 될 때——그 때에는 로씨야의 선진적 로동자는 모든 민주주의적 요소들의 선두에 서서 전제 제도를 타도하고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모든 나라의 프로레타리아트와 어깨를 나란이 하여)를 공개적인 정치 투쟁의 곧바른 길을 따라 승리적인 공산주의 혁명에로 인도할 것이다>.

…레닌은 이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자기의 전 생애를 밝혀 나아갔다. 이 목표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어떤 환상이거나 맹목적인 신념이 아니라 과학적인 확신이였다. 1894년에 레닌이 정식화한 이 목표야말로 당의 전 행로를 밝혀 주었던 것이다≫(359페지).

레닌의 전 생애는 공산주의를 위한 위대한 위훈으로 빛나고 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불타는 생애였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줄곧 사색하였다.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간 마지막 병환이 닥쳐 왔을 때 의사들이 엄격한 섭생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점심 식사 후 두 시간은 반드시 오침하도록 당부하던 일이 지금도 기억된다. 일리이치는 이 섭생 규칙을 지켰다. 그러나 그는 의사들의 이 요구를 의심쩍게 생각하였다. <그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소>——하고 그는 언젠가 말하였다. 사실 그는 침대우에 누워 있을 때나, 산책을 할 때나 또는 일상 생활상의 평범한 문제를 가지고 담소할 때나 할 것 없이 언제나 그가 전 생애와 온 힘과 생활의 한 순간 한 순간을 다 바쳐 온 그 위업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였다≫(52~53페지).

레닌은 오직 하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복무하는 것 외에는 달리는 살 수 없었으며 또 그렇게 살 줄도 몰랐다.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이와 같은 헌신적인 복무는 레닌의 무궁무진한 락천주의와 생에 대한 사랑, 생에 대한 희열의 원천이였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였다. 그는 스케트와 자전거를 타며, 등산하며, 사냥하러 다니기를 즐기였고 음악을 사랑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든 생활을 사랑하였으며, 동지들을 아끼고 사람들을 사랑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의 소박한 품성과 그의 쾌활하고 명랑한 웃음을 알고 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오직 한 가지——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광명하고 휘황하고 기쁨이 넘쳐 흐르는 부유한 생활을 위한 투쟁에 고스란이 바치였다. 이 투쟁에서 성과들을 달성하였을 때 그는 무엇보다 기뻐하였다. 그에게서 개인적인 것은 언제나 스스로 사회적 활동 속에 용해되여 있었다≫(291페지).

다 아는 바와 같이 나제쥬다 꼰쓰딴찌노브나 크룹쓰까야는 다년 간 교육 부문에서 일해왔고 새로운 쏘베트적 학교를 창설한 가장 탁월한 활동가의 한 사람이였다. 그러므로 레닌에 관하여 쓴 그의 론문집에도 자연히 학교와 아동들의 교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 있다. 공산주의에 대한 레닌의 열렬한 지향을 다른 모든 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력력히 볼 수 있다. 레닌은 쏘베트 학교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예정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쏘베트 국가의 전진 전망과 밀접히 결부시켜 고찰하였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자라나는 세대의 교양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는 학교를 무계급 사회의 준비를 위한 무기로, 자라나는 모든 세대를 공산주의 정신으로 재교양하기 위한 무기로 보았다. 일반 초급 학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였고 그것을 보다 높은 수준에로 끌어 올리기 위한 사업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친 탁월한 교육가의 아들인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맑스와 엥겔스가 학교에 관하여 그리고 교육과 생산 로동과의 결합에 관하여 쓴 론문들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읽었다≫(264페지).

엔. 까. 크룹쓰까야가 인용한 학교에서의 종합 기술 교육에 관한 레닌의 말들을 오늘날 실시되고 있는 학교 개편 사업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커다란 흥미를 자아낸다. 레닌은 학교에서의 종합 기술 교육에 대한 사업이 국내에서 매우 굼뜨게 진척되고 있음을 보고 당 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주장하였다. 크룹쓰까야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당 협의회에서는 바로 내가 종합 기술 교육화에 관하여 보고하기로 되여 있었다. 나는 물론 사전에 준비한 보고 요강을 일리이치에게 보였다. 일리이치는 그것을 보고 요강에 자기의 의견들을 적어 넣었다… 일리이치가 적어 넣은 의견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종합 기술 교육이 가지는 원칙적인 의의를 강조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였다. 일리이치는 이에 대하여 극히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였다. 그는 종합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야말로 무계급 사회의 건설을 위한 토대를 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이 나의 보고 요강에서 반드시 강조되기를 원했다≫(268페지).

레닌은 아동들, 자라나는 세대들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미래로 보았다. ≪그는 어린이들과 이야기할 때면 자주 반 롱담, 반 진담 삼아 <얘야 너는 커서 훌륭한 공산주의자가 될 테지, 그렇지?> 하고 묻군 하였다. 물론 이것은 롱담 삼아 한 말이였으나 그 속에는 모든 어린이들이 자각적인 공산주의자로 자라나, 온 세계의 혁명가들이 그의 실현을 위해 싸웠으며 또 싸우고 있는 그 위업을 이어 주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념원이 들어 있다≫(297페지).

최근 수십년 간에 공산주의 투사들의 대렬이 수없이 자랐으며 레닌이 생애를 바쳐 싸워 온 그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전 세계 인민들이 그처럼 멀리 전진한 오늘의 현실을 울라지미르 일리이치가 볼 수 있다면 그는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대중이 일떠 서기만 하면…≫

나제쥬다 꼰쓰딴찌노브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가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그와 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기억에 떠오른다. 그 때 나는 레닌에게 한 미국 잡지를 읽은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인들은 어느 해까지는 문맹을 퇴치할 예견이라고들 하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 퇴치하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레닌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이 일떠 서기만 하면 우리도 그 기간까지는 넉넉히 해낼 수 있소>. <대중이 일떠 서기만 하면>라고 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의 이 말은 그의 모든 견해를 특징 지어 주는 말이다. 그는 대중을 모든 새로운 것을 늘 창조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으로 보았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맑스와 엥겔스가 한두 번만 말하지 않은 대중의 역할에 관한, 대중의 창조적 의의에 관한 학설을 계승하였고 그것을 완전히 발전시켰다. 그는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그러하였다≫(46페지).

레닌은 바로 인민 대중이 창조하는 것——그것이 다름아닌 생생한 사회주의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근로자들의 혁명적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와 하나로 련결되며 융합되여 있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이 쏘베트에 관한, 쏘베트 정권에 관한 학설이란 무엇인가를 살펴 본다면 우리는 바로 쏘베트 정권에 관한 이 학설 속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결합이 실현되여 있으며 그것이 가장 완전하게 반영되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918년에 내가 쏘베트와 쏘베트 정권에 관한 통속적인 소책자의 집필을 준비하고 있을 때의 일인데 하루는 울라지미르 일리이치가 불란서 신문 <유마니테>에서 오려 낸 글을

나한테 가져다 주던 일이 기억된다. 나는 필자인 불란서 동지의 이름은 이미 잊었는데 그 글의 내용은 쏘베트 정권이 가장 심오하고 철저한 민주주의적 정권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나에게 그 글을 주면서 바로 이 측면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쏘베트 정권 그 자체에 깃들어 있는 참다운 민주주의 즉 프로레타리아트가 새로운, 보다 광범한 민주주의에로 올라 설 그 민주주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65~66페지).

론문집은 사회주의 건설과 공산주의 교양의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취한 실례들을 통하여 인민의 창조력을 깊이 확신한 일리이치의 신념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상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적극성을 백방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한 레닌의 방침을 력력히 보여 주고 있다.

대규모적 기계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강화할 데 대한 유언을 남기면서 《일리이치는 그런 공업 건설이 오직 대중의 손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다》(205페지)라고 크룹쓰까야는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고 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가 제 8차 쏘베트 대회에서 〈공산주의——이는 쏘베트 정권 뿔류쓰 전국의 전기화이다〉라고 한 말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나 그가 대중이 없이는 전기화 계획을 실현할 수 없으며 로동자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농민들도 국가 앞에 나서고 있는 이 과업들을 똑똑히 알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말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285페지).

당은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에 있어서도 로동 계급과 근로 농민의 혁명적 창발성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한 레닌의 방침을 준수하였다. 이 방침은 웨. 이. 레닌의 론문 《협동 조합에 관하여》에 명백히 천명되여 있다. 《그 론문에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협동 조합은 막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협동 조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실지로 주민 대중이 모두다 참가하는〉 그런 협동 조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 론문에서 대중 속에서의 문화 사업을 잘 할 데 대하여 쓴 그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그것은 생동한 사회주의란 바로 로동자 대중들이 창조하는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심오하고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서는 대중이 되도록 더욱 훌륭히 지식으로 무장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15~16페지).

울라지미르 일리이치와 함께 1920년 11월 14일 발전소 조업식 참가차로 월로꼬람쓰크군 까쉬노촌으로 갔던 일과 그 후 야로뽈레쯔 마을에 갔던 일을 회상하면서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월로꼬람쓰크촌 방문은 1920년 12월 22~29일 사이에 진행된 제 8차 쏘베트 대회에서 일리이치가 한 모든 연설들에 반영되여 있다》(215페지). 일리이치는 이 연설에서 설복을 더욱 광범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농업도 포함한 나라의 경제를 새로운 기술적 토대에로, 현대적인 대규모적 생산의 기술적 토대에로 올려 세우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수백만 사람들을 설복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레닌은 문화 건설에 기여하는 근로자들의 창의성에 대하여도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는 대중에게 서적이나 구락부 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그는 항상 대중이 어느 정도로 이 사업에 인입되여 있는가, 그들이 어느 정도 창발적으로 대하며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그에 참가하고 있는가를 물어 보았으며 또 알려고 노력하였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늘 알아 보았다. 나는 전쟁이 끝나 군대들이 제대되여 우리 교육 인민 위원부로 수 많은 군사 일'군들이 들어 왔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대중에게 복무하는 문제가 선동 사업 하나만이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었다. 나는 울라지미르 일리이치가 지방 일'군들이 참가한 우리의 한 회의에 참석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앉았다가 결론을 지을 때, 사업을 보다 깊이 있게 내세워야 하며 대중을 끌어 들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대중에게 복무할 뿐만 아니라 대중을 사업에 끌어 들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정치 계몽 사업 방침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시의 근저를 흐르고 있는 일관한 그의 사상이다》(228페지).

레닌은 또한 국가 기관의 사업을 개선하며, 관료주의와 투쟁하는 사업에 대중을 참가시키는 것이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아주 간곡하게 강조하였던 것이다.

《그는 정치 계몽 일'군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정치 계몽 일'군들은 관료주의를 다만 욕하는 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당신들 정치 계몽 일'군들은 문화적인 사람들인만큼 응당 실지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없애 버려야 하는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업을 정치 계몽 일'군들 앞에 명백히 제시하였다.

정치 계몽 일'군 대회가 있기 직전에 정치 계몽 일'군 대표들은 경제 단체들에 참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에 대답하여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데도 들어 갈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보통 성원으로서, 보통 공민으로서 싸워야 한다. 당신들은 대중의 문화 지도자들이다. 그런만큼 당신들은 실지로 대중들 속에 깊이 들어 가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정치 계몽 일'군들에게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기이하게 느껴졌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공문도 쓰고 지시문도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니다. 문제는 공문이나, 대표 기관이나, 끝없는 지시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중을 끌어 들이며 실지 사업을 통해서 관료주의와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그들에게 보여 주는 데 있는 것이다》(260~261페지).

레닌은 국가적 통제에 관한 문제에서도 대중을 인입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는 국가적 통제를 관리의 학교로 인정하면서 이 학교에서는 가장 겁 많고 둔하고 담력이 적은 로동자도 옳게만 지도한다면 관리 사업을 능히 배울 수 있다라고 하였다》(281페지).

론문집에 씌여 있는 것처럼 인민 대중의 적극성은 진실로 《맑스—레닌주의의 생활력》을 이룬다. 이는 특히 오늘날,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며 대중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관리 사업에 인입시킬 데 관한 레닌적 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당의 방침이 공산주의에로 넘어 가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실현되고 있는 이때에 더욱 명백히 볼 수 있다.

대중의 력사적 역할에 대한 레닌의 평가는 근로자들의 념원과 숙망과 그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될수록 더욱 완전히,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당의 정책과 그의 모든 실천적 활동에 옳게 반영하려는 그의 지향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레닌은 사회주의 국가를 지도하면서 대중의 혁명적 창발성을 끊임없이 발양시켰으며 새 생활 건설에서 쌓아 올린 그들의 경험을 연구 일반화하였고 그들의 기분 전환을 민감히 포착하여 제때에 그것을 참작하군 하였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한마디 말이나 문구로써도, 상대방에게 던지는 어떤 의견을 듣고서도 즉석에서 그의 기분을 알아차리군 하였다. 나는 신경제 정책으로 넘어 가기 바로 직전에 있은 쏘베트 대회에서 그가 깔리닌 동지에게 무소속 농민들의 협의회를 조직해 줄 것을 부탁하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모임에 참가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연설은 하지 않고 다만 한쪽 구석에 앉아 농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대중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이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가를 알아 보며, 그들의 기분을 알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이 요구를 감촉하는 것——울라지미르 일리이치는 바로 이것을 할 줄 알았다…》(259페지).

《…그는 로동자, 농민—빈농과 중농, 붉은

병사들을 대함에 있어서 높은 지위에서가 아니라 같은 동지로서,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하였다. 그들은 레닌에게 있어서 <선전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체험하고 많은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에 주의를 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산 인간들이였다. <그 분은 우리와 신중히 이야기하신다>——로동자들은 레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소박하고 동지적인 태도를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였다»(138페지).

《로동자, 농민, 붉은 군대의 집회에서 연설할 때마다 그는 대중을 격동시키고 있는——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다——문제, 자기 자신을 격동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고 일반적인 말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연설을 들을 때면 모든 로동자들과 농민들은 <그이는 모든 걸 리해하시는 분이다. 그이는 우리 사람이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였다»(16페지).

레닌처럼 대중을 믿으며, 대중의 생활을 알며, 그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신임을 쟁취할 줄 알며, 대중의 적극성을 제고시킬 줄 알며, 위대한 목적을 향하여 대중들의 선두에 서서 나아가는 것——공산주의자—레닌주의자들은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레닌과 당

대중의 창조적 힘에 대한 신심은 레닌에게 있어서 새 제도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사회주의적 자각성이 가지는 거대한 역할과 의의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서의 공산당의 역할과 의의를 인정하며 그것을 론중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있다. 이것은 엔. 까. 크룹쓰까야의 론문집에 심오하게 표현되여 있다. 당의 지도적 역할이 높으면 높을수록 따라서 근로 대중의 자각성, 조직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그들의 적극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는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되는 것이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닌의 전 생애는 당의 력사와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레닌은 외롭지 않았다. 그는 당원이였으며 당적 집단의 한 성원이였으며 당의 수령이였다»(86~87페지).

레닌은 당을 창건하였으며 수십년 간 《당원들을 묶어 세우며, 개별적 혁명가 크루쇼크들을 통합하는 어려운 사업»(93페지)을 수행하였다.

레닌은 당을 맑스주의적 리론과 강령으로 무장시켰으며 그의 전략과 전술의 기초를 작성하였다. 《레닌은 당 사업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당으로 하여금 그가 어디로 나가는가를 똑똑히 인식하게 하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렸다. 당이 어떤 로선으로 나아가야 할것인가를 생각하기 위해 레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으며 잠을 잊고 지낸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95페지).

론문 《레닌적 방침»과 기타의 로작들에서도 엔. 까. 크룹쓰까야는 공산당의 힘의 원천을 이루는 당의 가장 중요한 레닌적 전통을 특징짓고 있다. 실로 당은 이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 전 세계사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적 리론과 혁명적 실천의 가장 밀접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통일이였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리론과 현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한다. 일리이치의 서재에 들어 가면 언제나 그가 맑스와 엥겔스의 저서를 읽고 있는 것을 보군 하였는데 국가 생활이 매우 어려운 전환기이면 특히 그러했다. 투쟁이 한창 고조에 오른 때 리론을 연구하는 일리이치의 이 힘은 언제나 나를 놀라게 하였다. 그는 리론에서 실천상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를 찾았다. 실천을 리론과 능숙하게 결합시키며 얼핏 보기에는 사소한 일상적인 투쟁 문제들을 커다란 원칙적인 문제와 능숙하게 결합시킬 줄 아는 것——이것은 우리 당의 특징이며 레닌의 모든 활동의 특징이였다»(360페지).

《레닌주의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라는 보고에서 크룹쓰까야는 한 에피소드를 들어 이야기하였는데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 레닌의 말은 리론 연구에 대하는 그의 태도를 똑똑히 보여 준다. 그 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언젠가 나는 울라지미르 일리이치에게 스웨르들로브 종합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맑스주의 연구에 대하여 이야기한 일이 있었다. 나는 스웨르들로브 종합 대학에서 보내 온 보고를 읽었는데 그 보고는 대학생들이 가치론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정형에 대하여 쓰고 있었다. 보고에는 한 학생이, 가치란 무엇인가를 규정하노라고 밤새 론쟁하다나니 새벽녘에는 머리가 어찌나 벙벙해졌던지 거리로 뛰여 나가 어떤 행인을 붙잡고 그 행인에게 가치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라고 묻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울라지미르 일리이치에게 하였을 때 그는 그것은 맑스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맑스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규정이나 정식이 모든 과학상의 규칙에 정확히 들어 맞는가나 따져서는 안 되며 쇠말사에 파고 들어서도 안된다고 말하였다. 맑스주의 연구에서 주되는 것——그것은 맑스주의의 정수를 리해하며 그 기본 사상을 리해하며 맑스주의를 현실에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다»(353페지).

크룹쓰까야는 또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리이치는 리론의 연구와 더불어 모든 자료와 개인적 관찰에 의거하여 현실을 연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리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가 실생활을 깊이 관찰할 줄 알았고 사소한 매사에 주의를 돌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실을 랭철하게 평가하며 그것이 아무리 괴로울지라도 진실을 똑바로 들여다 볼 줄 알며 성과에 도취하지 않는 것——이것은 일리이치의 특유한 품성이였다. 일리이치는 이 품성을 수월하게 소유한 것이 아니였다. 그는 본래 사업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기군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였다. 무슨 일이 발생하기만 하면 그는 매우 흥분하고 신경이 예민해지여 밤을 꼬박 새웠으며 앓는 사람같이 안색이 창백하여 아침에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의지가 굳센 사람이였다. 그 어떤 어려운 곤난도 그의 시선을 결코 흐리게 할 수는 없었으며 그는 언제나 명철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매개 당원이, 전 당이 이러한 건전한 사상을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당내에는 리론을 연구하며 그것을 더욱 심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풍이 수립되였다. 이 기풍은 운동이 극히 폭넓게 전개되고 실천적 문제들이 정면에 나서고 그것이 막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그런 시기일수록 특히 중요한 것이다. 리론과 실천, 실천과 리론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이 기풍은 우리 당에 거대한 힘을 부여하였다»(361페지).

레닌은 또한 대중 속에서 맑스주의 리론과 사회주의 사상을 광범히 선전할 데 대한 과업을 당 앞에 제기하였다. 《혁명적 리론의 지식으로,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 그를 개조하는 방도로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이것은 일리이치의 전 생애에 걸친 사업이였다…

레닌은 선전 방법에 대하여, 선전을 어떻게 가장 효과 있게, 흥미진진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생각하였다»(361~362페지).

론문 《선전원 및 선동원으로서의 레닌»을 쓰면서 크룹쓰까야가 인용한 경제 건설의 정치적 경험에 근거하여 선전과 선동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한 울라지미르 일리이치의 명제와 사상들은 극히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레닌은 모범과 시범으로써 영향을 주는 독특한 선전실로,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광명한 불'빛을 비쳐 줄 홰'불로 쏘베트 국가를 전변시킬 데 대하여 열망하여 왔다»(151페지).

혁명적 리론을 연구하며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 선전과 선동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레닌은 대중 속에서 진행하는 당 조직 사업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였다.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이 문제에 대

하여 그는 특별히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그는 많은 시간을 실천적인 조직 문제의 연구에 돌렸다. 그 어떤 다른 분야에서보다도 이 분야에서야말로 장기적이고 완강한 미증유의 사업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는 레닌을 <로동 계급 해방 투쟁 동맹>의 조직자로, <이스크라>의 조직자로, 당의 조직자로, 쏘베트 정권의 조직자로 알고 있다…그는 사회주의의 핵심과 기본은 조직에 있다고 말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다음 우리의 과업은 전반적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이라고 그는 썼다. 그는 인민 속에서 각성되여 나오는 또 창조 사업에 이바지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현재의 조직들과 앞으로 근로 대중에 의하여 창설될 조직들에 합류시켜야 한다고 하였다》(362~363페지).

레닌적인 당 사업 전통은 쏘련의 위대한 공산주의 건설 행정에서 공산당에 의하여 약동하고 발전하고 풍부화되고 있다.

미래의 인간

울라지미르 일리이치 레닌에 관한 엔. 까. 크룹쓰까야의 론문 개관은 응당 《인간으로서의 레닌의 풍모》(60~62페지)라는 크룹쓰까야의 훌륭한 글에서 발취한 단편으로 끝을 맺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미래의 인간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의 성원으로서의 특징과 풍모들이 갖추어지고 있는 이때 인간으로서의 레닌의 형상이 가지는 고무적인 교양적 의의는 실로 거대하며 그의 생활, 그의 투쟁,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발휘한 진정으로 공산주의적인 그의 행동의 위대한 모범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크다.

엔. 까. 크룹쓰까야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닌은 참다운 혁명적 맑스주의자였으며 집단주의자였다. 그의 전 생애, 그의 전 활동은 하나의 위대한 목적——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바쳐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감정과 사상 전반에 흔적을 남겨 놓았는바 그는 소소유자적 개인주의자들에게서 흔히 엿볼 수 있는 온갖 협애한 태도라든가, 천박한 질투, 악의, 복수심, 허영심 같은 것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다.

레닌은 투쟁하였고 문제를 날카롭게 세웠다. 그러나 그는 결코 개인적인 것을 론쟁에 끌어 들이는 일이라곤 절대로 없었고 사업의 견지에 서서만 문제를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은 그의 날카로움에 대하여 보통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매우 주의 깊이 들여다 보았으며 그들이 하는 말에 신중히 귀를 기울였고 그 말의 본질을 포착하려고 노력하였다. 때문에 그는 약간의 평범하고 사소한 것으로도 그 사람의 면모를 파악할 줄 알았으며 극히 민감하게 사람들을 대하며 그들에게서 공동의 위업에 이바지될 수 있는 모든 훌륭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았다.

일리이치에게로 온 사람은 의례히 딴 사람으로 변하였는데 그것으로 하여 동지들은 일리이치를 사랑하였고 또 일리이치 자신은 그들과의 교제에서 다른 사람으로서는 좀체로 얻어낼 수 없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었다. 생활에서, 사람들에게서 배운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리이치는 이것을 할 줄 알았다. 그는 그 누구에 대해서도 꾀임'수를 쓴다거나, 외교적 수완을 쓴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며 또 사람을 속여 넘기는 일이란 결코 없었다.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진실성, 솔직성을 가슴으로 느꼈다.

동지들에 대한 배려는 그의 특유한 품성이였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나 자유로운 몸으로 있을 때나, 류형살이를 할 때나 망명 생활을 할 때나 또는 인민 위원 쏘베트 위원장으로 사업할 때나 할 것 없이 언제나 동지들에 대하여 배려를 돌리였다. 동지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에게 방조를 구하는 매우 먼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그는 배려를 돌리였다. 내가 보존하고 있는 단 하나의 일리이치

의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다——<당신에게 가끔 방조를 요구하여 보내 오는 편지들을 읽은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소>.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일리이치에게 다른 수 많은 걱정이 쌓여 있었던 1919년 여름에 있은 일이다. 그 때는 가는 곳마다에서 국내 전쟁이 버려지고 있었다…

그는 항상 나에게 같이 사업하는 동지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 번은 청당 사업이 진행되던 시기에 교육 인민 위원부에서 사업하는 나의 한 일'군이 무근거하게 공격 당하였을 때 그는 시간을 내여 한때 분드파였던 그 일'군이 일찍 10월 혁명 전에 볼쉐위크를 옹호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위하여 옛 문건을 들추어 본 일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레닌을 선량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선량이라는 낡은 어휘에서 파생한 <선량한>이란 단어는 일리이치에게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말이다. 이 말은 어딘가 부족하며 부정확하다.

낡은 시대의 매우 뚜렷한 특징인 가족적 혹은 크루쇼크적 폐쇄성이란 일리이치에게는 절대로 없었다. 그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따로 떼여 보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 그것은 레닌에게 있어서 하나로 융합되여 있었다. 그는 견해가 서로 다르고 사업에서 동지로 될 수 없는 그런 녀성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 대하여 열렬한 애착심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그의 전형적인 애착심은 그가 많은 것을 얻은 쁠레하노브에 대한 관계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쁠레하노브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았거나 그의 견해가 사업에 해를 끼친다고 보았을 때 어디서든지 그와 투쟁하는 것을 그에게 조금도 방해하지 않았으며 쁠레하노브가 방어주의자로 전락하였을 때에는 그와 관계를 끊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면 레닌은 매우 기뻐하였다. 사업——그것은 레닌이 생애를 바쳐 왔고 사랑하고 열중하여 온 바로 그것이였다. 레닌은 대중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언제나 힘껏 노력하였으며 또 그렇게 할 줄을 알았다. 로동자들과의 교제는 그 자신에게 매우 많은 것을 주었으며 매 단계마다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 과업을 진실로 리해할 수 있게 하였다. 과학 일'군으로서, 선전가로서, 문필가로서, 편집자로서, 조직자로서의 레닌이 어떻게 사업하였는가를 주의 깊게 연구만 한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레닌도 리해할 수 있다. 그의 론문과 연설 속에 담겨 있는 수 많은 의견들이나, 지어는 개별적인 표현과 말 어'구에서까지도 집단주의자, 로동자의 위업을 위한 투사로서의 일리이치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 집단주의자, 로동자의 위업을 위한 투사로 된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그런 인간은 자기의 시야가 더욱더 넓어지며, 생활에 대한 리해가 더욱 깊어지며, 자기의 활동 무대가 확대되는 것을 항상 느끼며, 자기의 사업 능력이 커지는 것을 항상 감촉하게 된다. 그는 대중의 장성과 함께 그리고 사업의 장성과 함께 자기 자신도 장성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리이치는 그토록 통쾌하게 웃군 하였으며, 그토록 명랑하게 롱담하군 하였으며, 그토록 <푸른잎 무성한 나무>를 사랑하였던 것이다. 생이 그만큼 그에게 희열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살았던들 그와 같은 그로는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맑스주의 리론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위업이 승리한다는 깊은 확신을 그에게 주었고 그에게 필요한 깊은 통찰력을 주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와의 극히 밀접한 련계 밑에서 진행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위업을 위한 투쟁과 사업은 일리이치에게 미래의 인간이 지녀야 할 특성을 부여하였다…》

레닌처럼 산다는 것——그것은 고상하고 고결한 공산주의 정신으로 자신을 교양함을 의미하며 그 사상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이며 헌신적인 투사로 되며 미래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 인간이 구비하여야 할 그런 특성과 품성으로 자신을 교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쏘련 《꼼무니쓰트》 1960년 제 3호)

조선 녀성은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

김 귀 선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10년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제 2차 국제 사회주의 녀성 대회는 녀성들의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 강령을 채택하고 해마다 3월 8일을 전 세계 녀성들의 친선과 단결을 시위하는 국제적 명절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때로부터 녀성 운동은 국제적 범위에서 더욱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게 되였다.

코펜하겐 대회에서 채택된 녀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령들은 이미 우리 나라를 포함한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였다. 오늘 사회주의 나라 녀성들은 완전한 사회적 및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 일떠선 우리 나라 전체 근로 녀성들은 3. 8 국제 부녀절 50주년에 제하여 자기들에게 보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이 명절을 불꽃튀는 증산 투쟁으로 맞이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한 고지로부터 새로운 보다 높은 고지에로 이행하기 위한 위대한 전환기에 처하여 있다.

어제'날의 락후한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도시와 농촌에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력사적 변혁에 상응하여 녀성들의 사회적 처지도 일변하였다. 공화국 전체 녀성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또는 사회주의적 가정의 알뜰한 주부로 되였다.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 사회주의적 가정의 주부로 된것은 조선 녀성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수천년 동안이나 우리 녀성들은 정치와 사회 생활에서 버림 받고 있었으며 봉건적인 도덕과 신분적 예속에 얽매여 피눈물나는 나날을 보내였다. 특히 군사 봉건적 일본 제국주의 통치하에서 민족적, 사회적 멸시와 억압 착취 그리고 남성에의 예속으로 인하여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도 향유하지 못했던 조선 녀성들은 몽매와 기아와 빈궁의 원한에 찬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의 향도밑에 인민 정권의 따뜻한 품 속에서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찾고 무한히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국가, 사회 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 1만 6,500 여명의 녀성들이 최고 인민 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 기관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녀성들이 당, 정권 기관 및 사회 단체들의 지도적 지위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충분하다.

우리 사회주의 건설자들의 대렬에는 수 많은 근로 녀성들이 남성들과 어깨를 겯고 힘찬 로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녀성들은 공장, 기업소,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발휘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는 비단 녀성들의 사회적인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일찌기 위대한 레닌은, 녀성들이 부엌살이와 아이 시중으로부터 벗어나 경제 문화 건설 사업에 전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그들의 사회적 해방을 완성하는 유일하게 옳바른 길이라고 가르쳤다.

이러한 맑스—레닌주의적 견지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해방 후 녀성들을 새 사회 건설에 광범히 인입하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해방되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돌려 주었다.

해방 후 당과 정부는 녀성들의 세기적 숙망이던 사회적 및 정치적 권리와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한 모든 물질적 조건들을 보장하여 주고 있다.

모든 일터에서 산전 산후 77일 간의 유급 휴가제, 산원 무료 봉사, 산아 보조금 지불, 탁아소 유치원망의 광범한 설치, 로동 보호 대책의 특별한 강구 등 근로 녀성들에 대한 당의 배려는 참으로 크다.

우리 녀성들은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을 항상 조선 로동당의 이름과 결부시키면서 언제나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모든 힘과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싸우고 있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 녀성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을 위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이후 녀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급격히 증대되였는바 그 수는 최근 1~2년 간에 20여만 명으로부터 51만 여명으로 놀라우리만큼 늘었다.

인구의 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의 광범한 사회적 진출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오늘 녀성들을 생산에 광범히 참가시킨다는 것은 ㄱ, 녀성들의 정치적 락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발전과 함께 긴장하여지는 로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며 ㄴ, 로력자가 많아짐으로써 상품 생산이 증가되여 인민들의 수요를 더욱 충족시킬 수 있게 하며 ㄷ, 그들 자신이 생산에 참가하는 것만큼 수입이 높아짐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기본 고리로 된다》(《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하여》).

오늘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 진출한 우리 녀성들은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써 더 많이 생산하라!》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선진 기술,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 설비 리용률 제고 등 온갖 창발성을 발휘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높임으로써 자기들에게 부과된 생산 과제를 초과 수행하고 있다.

항상 당과 같이 호흡하며 알뜰하고 아름다운 심정을 가진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씨처럼 모든 생산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농촌 녀성들은 완충기의 주되는 과업인 농촌 경리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궐기하였으며 알곡 증산, 축산업, 양잠업의 발전을 위하여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당 및 국가 기관, 경제 기관, 문화 교육 기관에서 일하는 녀성들은 새 환경의 요구에 알맞게 사업 방법을 개선하며 모든 분야에서 당 정책의 관철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 녀성들은 당이 부르는 집단적 혁신 운동에 광범히 참가하고 있다.

평양 제사 공장 천리마 작업반장 길 확실 동무는 락후한 작업반을 담당 지도할 것을 자원하여 나섰다. 락후한 작업반을 선진적 작업반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기 위한 길 확실 동무의 공산주의적 발기는 오늘 전국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보급 일반화되고 있다.

우리 녀성들은 문화 혁명과 기술 혁명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으며 한결같이 천리마의 기수답게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고 있다.

오늘 우리 녀성 사회주의 건설자 대렬에는 15명의 로력 영웅을 비롯하여 3만 여명의 각

종 수훈자들, 1만 8,500 여명의 기사 기수 기타 전문 일'군들, 140 여명의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들이 있다.

오늘 천리마의 기세로 약진하는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세기적 성과에는… 녀성들의 창조적 열성과 재능에 의한 거대한 로력적 위훈이 깃들어 있다》(《3. 8 국제 부녀절 50주년에 제하여 전체 조선 녀성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편지》).

이것은 우리 녀성들의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의 표현인 동시에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의 뚜렷한 표현이다.

오늘 조선 녀성들은 사회주의 건설자답게 일하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고상한 도덕적 품성을 사회주의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

예로부터 조선 녀성들은 근면하고 강의하며 부드럽고 현숙하며 례절 바른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림당수에 몸을 던진 효성이 지극한 심청이나 사랑과 절개를 지켜 추악한 관료배들에게 항사코 항거한 춘향의 고매한 형상만을 상기해도 충분하다.

오늘 우리 녀성들의 고상한 풍모는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더욱 아름답게 개화 발전되여 가고 있다. 근면하고도 락천적인 그들은 일터에서는 천리마의 기수가 되고 가정에서는 항상 남편의 친근한 동지로, 어린이의 자애로운 어머니로 되고 있다.

오늘 조선 녀성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녀맹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국제 녀성 운동의 발전과 세계 평화 특히 극동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조선 민주 녀성 동맹은 1946년 12월에 국제 녀맹에 가입한 후 형제 국가들과는 물론,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녀성 단체 및 인사들과 접촉을 확대하며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오늘 조선 녀성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극동의 평화 위업에 기여하는 위훈으로 하여 전 세계의 선량한 녀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수천년의 력사를 통하여 오늘처럼 우리 녀성들이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국제적인 존재로 되여 본 적은 일찌기 없었다.

바로 이와 같은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지난 세대의 선진 녀성들은 기나긴 세월을 두고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조선 녀성들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일어난 반일 해방 투쟁의 불'길에 광범히 합류하여 자기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특히 조선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은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명백한 강령을 가지고 전 인민적 민족 해방 투쟁과의 유기적인 련관 속에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조국 광복회 강령 제 7조에는 《량반, 상민 기타 불평등을 배제하고 남녀, 민족, 종교 등 차별 없는 일률적 평등과 부녀의 사회적 대우를 제고하고 녀자의 인격을 존중히 할 것》이라고 밝혀져 있다.

이 때로부터 조선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다.

1937년 7월 장백현 유격 근거지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 열병식이 진행되였을 때 신흥촌 부녀회원들은 《조국 광복은 부녀자 해방이다. 조 중 녀성들은 단결하자!》라고 수놓은 축기를 이 열병식에 증정하였다.

이 구호는 전체 조선 녀성들의 일치한 념원의 반영이였다. 이 구호에서는 조국의 광복과 그들 자신의 사회적 해방을 위한 세기적 숙망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지 않는가.

조선 민족에게 민족적 재생의 넋을 더욱 새로이 가다듬게 한 위대한 보천보 전투에 참가하여 빛나는 공훈을 세웠으며 그 후의 계속되는 전투에서 부대의 척초병으로 싸우다가 용감하게 전사한 빨찌산의 《녀 장수》 김 학실 동무를 비롯하여 수 많은 항일 빨찌산 녀대원들의 백절불굴의 투지는 조국과 혁명에 대한 우

리 녀성들의 충직성과 헌신성의 구감으로 된다.

조선의 우수한 딸들은 그 얼마나 오늘의 행복을 위하여 피흘렸으며 그 얼마나 고난의 시련을 겪었던가!

원쑤들의 총칼도, 감옥도, 교수대도 결코 조선 녀성들의 애국적 전통과 혁명적 절개를 꺾을 수 없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빨찌산들의 고귀한 혁명 전통을 이었기에 우리 녀성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도 그처럼 영웅적으로 투쟁할 수 있었다. 수천 수만의 우리 녀성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작렬하는 적탄의 불바다 속에서도 불사조마냥 용감히 싸웠다.

쏘련을 비롯한 전 세계의 선진적 녀성들은 용감히 싸우는 조선 녀성들을 백절불굴의 기개의 상징으로, 헌신성과 용감성의 모범으로 보면서 육친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조선 녀성들이 발휘한 영웅성은 조국 청사에 길이 빛나는 위훈으로 남을 것이다.

원쑤와의 싸움에서 단련된 조선 녀성들은 전후 사회주의 건설에서도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 녀성들은 전쟁 시기에는 《영웅적 녀성으로》, 오늘에는 《천리마의 녀성으로》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강점과 리 승만 도당의 파쑈테로 통치하에 있는 남반부 녀성들의 처지는 북반부 녀성들의 처지와는 판이하다. 그들은 중세기적 억압과 천대와 멸시, 식민지적 착취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서 신음하고 있다.

남조선 녀성들의 무권리 상태는 괴뢰 정부의 《민법》에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민법》은 녀성들의 남성들에 대한 사회 경제적 종속을 규정하고 있다. 례하면 녀성들은 재산의 상속, 처리의 권리, 리혼 및 자식들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 당하고 있다.

남조선 녀성들에 대한 사회적 천대와 멸시는 극도에 달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는 축첩, 자창 제도가 횡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 매매 제도까지 존재하고 있다.

살아 갈 방도를 잃고 참아 목숨을 끊을 수 없어 본의 아닌 륜락의 길로 떨어진 녀성들의 수는 무려 40 여만 명에 달하며, 미제의 대포'밥으로 남편을 빼앗기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는 전쟁 과부들의 수는 50 여만에 달한다.

남조선 녀성들의 이와 같은 눈물겨운 처지는 아동들의 운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수십만의 고아들이 류랑 걸식하고 있으나 리 승만 도당은 이에 대한 구제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미국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먹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지난 15년간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매국 배족적 정책에 의하여 빚어진 후과이다.

지금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는 자기의 침략군을 철거시킬 대신에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원자 무기, 유도 무기를 끌어 들이며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미제 침략군을 물러 가게 하고 하루바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남반부의 녀성들과 어린이들을 구원하여야 한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것은 전체 조선 인민의 념원이며 민족적 과업이다.

이 념원이 실현되고 우리 조국 남반부에도 북반부에서와 같이 사회주의가 건설될 때에만 남반부 인민들도 착취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녀성들도 봉건적, 자본주의적 예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여 북반부 녀성들과 같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지니고 당당한 사회주의 건설의 역군으로 될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화국 녀성들은 당적 사상 체계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로력적 위훈을 발휘하여야 하며 우리의 후대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양육하는 사업에서 온갖 정열을 기울여야 하며 생활을 문화 위생적으로 꾸리는데 모범이 되여야 하며 전 세계 평화 애호 녀성들과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 보건 사업 발전의 새로운 단계

지 면 식

얼마 전에 있은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7차 회의는 인민 보건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중요 결정을 채택하였다.

결정은 인민들의 건강을 더욱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실시하여 온 무상 치료제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에 걸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에로의 이행을 제시하였다.

또한 결정은 인민 보건 사업에서 질병 발생의 온갖 근원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 사업을 강화하며, 우리 나라 문화 혁명의 한 부문으로서의 위생 문화 사업을 더한층 강력한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이것은 인민 보건 사업 발전에서 대사변으로 될 뿐만 아니라 문화 혁명과 전체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고 있는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며, 그들이 문화적인 환경에서 즐겁게 일하며 생활하도록 인민 보건 사업을 발전시킴에 거대한 배려와 관심을 돌려 왔다.

해방 후 우리 당은 보건 분야에서 일제가 남긴 반동적 의료 제도를 완전히 청산하고 인민 보건 제도를 세움으로써 보건 분야에서 인민들에 대한 가장 인도주의적인 배려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인민 보건 제도를 세우는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제도를 담보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당의 옳바른 령도로 이룩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인민 보건 사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급속히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벌써 1950년에 와서는 무상 치료제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기본적으로 성숙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조국 해방 전쟁이 진행되던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953년부터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를 실시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돈과 목숨을 바꾸는 저주로운 의료 제도가 빚어내던 악덕은 영원히 과거사로 되였다.

당은 전후 시기에도 인민 보건 사업 발전에 심중한 관심을 돌렸는바 이에 있어서 특히 력사적인 우리 당 제 3차 대회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대회는 인민 보건 분야에서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들을 미연에 방지하며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도시와 공장 지구, 농촌 등 주민 지구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며, 방역 대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전원 회의는 제 3차 당 대회의 결정 정신에 립각하여 예방 의학적 방향으로 인민 보건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할 것을 중심적 과업으로 제시하고 치료 예방 사업을 질적 량적으로 개선 강화하며, 보건 일'군들 속에서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제 3차 당 대회와 8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제반 시책들에 립각하여 우리 당은 예방을 치

료에 선행시키는 대책을 확고히 수립하고 주민들의 로동 및 생활 환경을 위생 문화적으로 개조하며 파리, 모기, 쥐 등 각종 유해물들을 박멸하며 장기간에 걸쳐 우리 나라 일부 지방에 토착되여 온 디스토마의 매개물을 박멸하는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최근 시기에도 당은 무상 치료제를 더욱 확대하여 한방 치료까지 무상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당의 정당한 인민 보건 정책에 의하여 오늘날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로동 및 생활 환경은 급속히 위생 문화적으로 개조되여 가고 있으며 그들의 건강도 현저히 증진되고 있다. 수 많은 목욕탕이 도시와 농촌들에 건설되였으며, 위생 시설들과 변소들도 위생적으로 개조되고 있다. 최근 수년 간에 공화국 북반부 전체 읍, 구, 동의 65.2%, 전체 농촌의 29.7%에 해당하는 리들에서 이미 위생 개조 사업이 완료되였다.

오늘 주민들의 리병률은 훨씬 저하되였으며 일제 식민지 통치가 남겨 놓은 코레라, 천연두, 재귀열 등 악성 전염병들은 근절되였으며 장티브스도 기본적으로 퇴치되였다. 일제 시기부터 토착 만연된 디스토마증 환자의 74%를 이미 완치시켰으며, 금년에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당의 정확한 인민 보건 정책에 의하여 또한 주민의 출생률은 계통적으로 장성되고 있으며 반면에 사망률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 주민의 사망률은 1944년에 비하여 1959년에는 57.7%로 저하되였으며, 인구의 자연 증가률은 2.6배로 장성되였다. 인민들의 평균 수명은 일제 시기보다 15년이나 더 연장되였다.

인민 보건 사업이 달성한 이와 같은 거대한 성과는 우리 당 보건 정책의 정당성과 인민 보건 제도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 생활력을 실증하여 준다.

오늘 사회주의—공산주의를 향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약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은 그에 상응하게 인민 보건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성숙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우리 근로자들 앞에는 사회주의의 더욱 높은 고지에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완충기의 당면한 과업과 보다 행복한 미래에로의 부단한 전진을 위한 력사적 과업들이 놓여 있다.

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려면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켜야 하며, 인민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며,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금번에 실시되게 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에로의 이행은 오늘의 현실적 요구에 적응한 우리 당의 또 하나의 획기적인 혁명적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에로의 이행에 대한 현실적 요구는 그 어떤 단순한 주관적 욕망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주관적 욕망으로서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력사적 념원이였다. 그러나 그 욕망은 과거의 그 어떠한 사회에서도 실현될 수 없었다. 이것은 오직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의 성숙과의 련관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혁명의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보건 사업의 사회적 기초도 해당 사회 제도에 전적으로 의존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건 사업의 성격과 조직 형태들도 그 사회의 생산 방식에 의하여 규정된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은 오직 값싼 로동력으로 요구될 뿐이다. 착취자들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하여 하등의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맑스는 정당하게도 《폐결핵과 기타 폐병들은 자본의 한 개 존재 조건》(《자본론》, 조선문 판, 제 1권 2분책, 151페지)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레닌은 자본주의 제도의 본질을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가들은 《임금 노예의 신경과 근육의 에네르기를 한방울한방울 3배의 속도로 짜내게 된다. 빨리 죽지 않겠는가고?——대신할 사람은 얼마든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전집, 제 18권, 조선문 판, 757~758페지).

계급 사회에서는 인민들을 위한 진정한 보건 제도란 있을 수 없으며 더우기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 빈궁과 기아, 식민지적 2중 3중의 압박은 그들의 사회적 질병과 불구의 근원으로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자본주의 제도를 비롯한 온갖 착취 제도의 청산과 새로운 사회주의 제도의 확립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도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를 청산함으로써 드디여 사회—경제 제도와 인민들의 건강 간의 모순도 없애 버릴 수 있게 되였으며, 질병 발생의 사회적 근원도 없애 버릴 수 있게 되였다. 근로자들의 처지는 자본의 착취의 대상으로부터 새 사회의 창조자로 전환되였으며, 그들은 가장 가치 있는 생산력으로 되였다.

이제 와서 근로자들의 건강은 그들 자신과 더불어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사회적인 일로 되였다.

우리의 국가 정권은 당의 옳바른 령도하에 근로자들의 문화적인 생활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력사적인 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인민 보건 사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쌓아 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현저한 향상, 전반적인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촉진, 도시와 농촌에서의 광범한 위생 개조 사업, 주택 및 문화 기관들의 대대적인 건설, 보건 기관들의 부단한 확장——이 모든 것은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인민 보건 사업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에로의 이행이 우리 나라 사회 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인민 보건 사업의 인민적 국가적 성격과 동시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그의 실현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 축성의 필연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당은 무상 치료제를 실시할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을 우리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또한 해방 전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이 혁명 근거지에서 창설 실시한 인민 병원 제도와 무상 치료제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해방 후 첫 시기부터 무상 치료제를 실시할 데 대한 방침을 시종일관 취하여 왔다. 20개조 정강에는 《국가 병원 수를 확대하며 전염병을 근절하며 빈민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이 지적되여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이 방침을 더욱 발전시켜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에로 이행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의 실시는 당 보건 정책의 가장 찬란한 성과의 하나이며 우리 인민 보건 사업의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 ❊

이처럼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의료 방조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의료 방조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진료소가 없는 일부 리들에 금년 내로 진료소의 설치를 완료하며, 의료 기관들과 병원 침대 수를 계속 증가시키며, 1961년 내에 우리 나라 전체 임신부들에게 무상으로 해산 방조를 줄 데 대한 대책을 실시하며,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유아들에 대한 보호와 의료 방조의 완전한 수행을 위하여 1~2년 내로 도, 시, 군에 소아과 병원(소아과 병동)의 설치를 완료하며, 유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등 문제들이다.

전체 임신부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해산 방조를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에 점차 산원을 설치하며, 군 병원 산과들을 확장하며, 농촌 진료소에 산과 침대제를 점차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우선 현존 예비와 온갖 능력을 총 동원하여 최단 시일 내에 전체 임신부들에 대한 해산 방조를 보장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지난 시기 문덕군 인민 병원 조산원 최 순옥 동무(현재 문덕군 인민 병원 원장)의 경험 하나만 보아도 완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명백하다.

문덕군에서는 자연 부락 또는 농업 협동 조합 단위로 모범적인 녀성들을 추려 해산 방조원을 많이 양성함으로써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난 해에 군내 전체 임신부의 96%에게 해산 방조를 줄 수 있었다.

모든 군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하여 이와 같이 창발적으로 일하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조직한다면 문제는 풀려 나갈 것이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는 예방과 의료 봉사의 질 제고 문제와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의사 담당 구역제를 더욱 발전시켜 가까운 년간 내에 도시에서 의사 담당 구역제를 완성하며 농촌에서 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의사 담당 구역제는 오직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실시될 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의료 봉사 조직 형태이다. 이것은 전문'과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 수의 구역을 담당하여 일상적으로 그들의 건강을 료해 파악하고 관리하며 책임진다. 의사는 일단 발병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위생 생활을 지도하며 질병을 예방하며 질병 발생의 근원을 제거한다.

따라서 의사 담당 구역제는 치료 사업의 질적 보장 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가장 발전된 의료 봉사 조직이다. 이것은 의사들의 임무 자체를 병을 고치는 것으로부터, 주로는 병에 걸리지 않게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에로 점차 전환되게 할 것이다.

인민 보건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의학 과학 연구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것이 긴요한 과업으로 제기된다. 이에 있어서 의학 과학 일'군들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더불어 과학 조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의학 과학 연구 력량을 현실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집중시키며 이에 광범한 치료 예방 기관 일'군들을 적극 망라시켜야 한다.

또한 한방 치료가 더욱 확대되는 조건하에서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한의학을 계속 계승 발전시키며 그를 광범히 림상에 도입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한의사들과 신의사들의 협동 치료 사업은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한의학 연구 사업에 신중한 관심을 돌리는 동시에 한의학의 우수한 경험과 방도들을 현대 과학으로 해명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는 문제이다. 예방을 치료에 선행시키는 것은 질병 발생에서의 환경의 역할과 그의 의식적인 개조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현대 과학의 제 성과에 기초를 두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1951년 11월 전시하 보건 일'군들과의 접견 석상에서 《우선 인민 대중에게 보건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여 모든 병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미리 예방될 수 있는 대책을 전 인민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문제》(선집, 제 3권, 330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당은 인민 대중 속에서 각종 선전 수단들을 통하여 위생 선전 계몽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새로운 위생 방역 기관들과 위생 검열 기관들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생활 및 로동 환경을 문화 위생적으로 개조하며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만연되여 오던 악질 전염병들을 시급히 퇴치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이 운동은 주민들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비문화적이고 비위생적인 낡은 생활 습성을 마스고 주민들의 일반적 위생 문화 수준을 제고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사상 의식의 개변 운동과의 통일 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의 이러한 인민 보건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 속에서 계속 꾸준하고 인내성 있는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 ❊

인민 보건 사업의 강화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에로의 이행——이것은 오랜 세월을 두고 병들어도 약 한 첩 변변히 쓰지 못하고 살아 오던 우리 조상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숙망의 실현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도 미제 강점하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어도 배려를 받을 길 없는 공화국 남반부 인민들

의 구국 투쟁에 주는 또 하나의 거대한 고무로 된다.

이 사업은 이와 같이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그만큼 역시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 및 정권 기관 지도 일'군들이 이 사업의 의의와 내용을 옳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계획 밑에 그의 실현을 추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특히 치료 예방 기관망을 인민들 속에 접근시키는 문제에 신중한 주의가 돌려져야 한다.

아직 진료소가 없는 일부 리들에 금년 내로 그의 설치를 완료하며 의료망 조직에서 산업 지구, 농촌에 더 많은 의료 시설을 신설 확장함으로써 의료 혜택을 대중에게 더욱 접근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 실시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예방과 의료 봉사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기본적인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사상 문제이다. 보건 일'군들이 환자의 아픔을 진정 자기의 아픔으로 간주하게 될 때에만 의료 봉사의 질도 제고될 수 있는 것이다.

《유격대의 군의》로서 널리 알려진 박 성우 동지는 자기의 회상기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의사——이는 인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고귀한 사명을 지니고 있다. 의사는 이 고귀한 사명을 수행하려면 의사이기 전에 먼저 그들의 벗이여야 하며 생활에 대한 진실한 리념의 소유자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 211페지).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 보건 일'군——공산주의 보건 전사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며 태도이다. 그러자면 모든 보건 일'군들이 당적 사상 체계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보건 일'군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 공산주의 교양,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여야 하며 동시에 일부 보건 일'군들에게 남아 있는 가족주의, 기술 지상주의, 개인 리기주의, 군중에 대한 그릇된 견해 등 부르죠아 사상 잔재와의 사상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의료 봉사의 질을 제고함에 있어서 당적 사상 체계의 확립 문제는 보건 일'군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보건 일'군들은 선진 의학 기술을 보다 광범히 도입하며 자체의 실무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여야 한다.

인민 보건 사업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방 정권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지방 정권 기관들은 위생 문화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각급 인민 위원회들의 보건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며 보건 기관들에 대한 그의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김 일성 동지를 중심으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민 보건 사업을 강화함에 필요한 모든 물질—기술적 토대가 조성되고 있다.

당의 의도를 받들고 한결같이 궐기한 우리 보건 일'군들과 전체 인민들의 창조적 열성에 의거하며 그를 옳게 조직 동원한다면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 치료제는 성과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조선 로동당 력사 연구 자료

해방 직후 대중 전취를 위한 우리 당의 투쟁

(1945, 8~1946, 1)

김 기 환

맑스-레닌주의는 로동 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농민 대중을 비롯한 온갖 피착취 대중을 전취하여야 하며 로농 동맹에 확고히 립각하여 광범한 근로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레닌은 혁명 수행에서 대중 전취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만일 정말 투쟁 시기에 근로자들의 다수——로동자들의 다수 뿐만 아니라 전체 피착취자들과 피압박자들의 다수——가 우리 편에 있다면 그 때에는 우리는 참말로 승리할 것이다》(전집, 제 32권, 조선문 판, 623페지)라고 교시하였다.

혁명 수행에서 대중 전취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이 문제가 바로 로동 계급의 당의 전략적 로선의 중요 부분으로 되기 때문이다.

김 일성 동지는 혁명 그 자체가 근로 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 없이는 혁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을 강화해야 하며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워야 한다. 군중을 쟁취함이 없이는 당도 강화할 수 없고 혁명도 할 수 없다》(《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2월 전원 회의에서 진술한 결론》)고 교시하였다.

그러나 혁명의 모든 시기에 대중이 저절로 우리 당을 따라 오며 혁명에 참가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혁명의 직접적 후비군으로서의 중간 계층(도시와 농촌에서의 소부르죠아지들을 의미하는바 이 층은 주민의 다수를 이루고 있다)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중간 계층 또는 그의 다수는 계급 투쟁이 첨예화되거나 혁명이 일정한 시련을 겪을 때 많은 경우에 주저와 동요를 거쳐 강한 편으로 넘어 가려는 자연적 추향을 나타낸다. 혁명에서의 이러한 우유부단성과 동요성은 그들 자신의 경제적 및 계급적 본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불가피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사정은 그들이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도 혹은 로동 계급을 반대하는 부르죠아지의 후비군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누가 주민의 다수를 이루는 중간 계층을 전취하는가 하는 문제는 혁명과 반혁명의 어느 편의 력량을 강화하는가 하는 문제의 중요한 고리이며 따라서 혁명적 당 앞에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해방 직후 우리 당 앞에 대중 전취 문제가 긴요하게 제기된 것은 이상과 같은 일반적 필요성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로부터 출발되였다.

해방된 조선 인민 앞에는 일제의 잔재 세력과 미제 침략 세력을 구축 소탕하며 동시에 조선 사회 발전을 장애하는 봉건적인 토지 소유 관계와 봉건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이 제기되어 있었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있어서 혁명의 동력은 로동 계급과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인 근로 농민과 도시 소부르죠아지들이며 일부 민족 부르죠아지들도 혁명을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혁명의 적은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그의 앞잡이인 국내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이다. 그러므로 해방 직후 우리 혁명 앞에 제기되였던 기본 임무와 그의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 농민을 비롯한 도시 소부르죠아지들과 일부 민족 부르죠아지들까지도 포괄하는 각계 각층 인민 대

중파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결정적 담보였다.

이 과업의 수행은 해방 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유리한 혁명 정세에 의하여 더욱 가능하였었다. 즉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지주, 예속 자본가, 민족 반역자들의 정치적 지반은 무너졌으며 해방된 인민 대중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고도의 정치적 열의와 혁명적 정열을 발휘하게 되였고 전국적 규모에서 혁명적 앙양이 이루어졌다.

특히 쏘련 군대의 북조선 진주와 함께 15개 성상에 걸치는 장기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온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 핵심들의 조국 개선은 우리의 주체적 혁명 력량을 강화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그러나 미제 침략 군대의 남조선 강점은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에 복잡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첫날부터 민주 력량을 탄압하고 반동 세력을 규합하여 민족 분렬을 획책하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미제의 비호와 조종 밑에서 리 승만 역도를 위시한 각 계렬의 반동 세력들은 규합되기 시작하였으며 대중을 자기 주위에 묶으려고 책동하였다. 민족 부르죠아지와 소부르죠아지들도 자기의 조직을 가지려고 시도하였으며 온갖 사기사들과 정치적 협잡'군들은 한 몫 보려고 소란스럽게 날뛰였다.

이리하여 혁명적 기세는 좋으나 정치적으로 각성하지 못한 대중은 누구를 따라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똑똑히 알지 못하였다.

정세는 대중에게 나아갈 바 길을 명시하며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조직 동원할 령도적 당을 요구하였으며 인민의 수령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우리에게는 로동 계급의 대렬을 조직적으로 결속하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 승리에로 령도할 수 있는 로동 계급의 전위 부대인 당이 없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 것은 실로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관건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우들과 함께 고국에 개선한 김 일성 동지는 우리 혁명의 전도가 전적으로 《누가 대중을 쟁취하겠는가 공산당이 령도하는 로동 계급이냐 자본가 계급이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중을 전취하기 위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혁명을 승리에로 확고히 인도할 수 있는 강력한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 당을 창건하고 그의 지도하에 광범한 대중을 당의 주위에 집결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　　　　*

1945년 10월 평양에서 우리 당 창립 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는 우리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채택하고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건하였다. 이 때로부터 우리 당은 통일적인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대중 전취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게 되였다.

그러나 해방 직후 대중 전취를 위한 우리 당의 투쟁은 허다한 난관에 봉착하였으며 내외의 계급적 원쑤들과 종파 분자들의 파괴 활동과 분렬 책동을 극복함으로써만이 승리할 수 있었다.

대중 전취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 앞에 조성된 난관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화 정책의 실시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이 우리 당 주위에 집결되는 것을 백방으로 저애하였으며 반동 분자들로 하여금 대중을 탈취케 하려고 적극 기도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의 비호와 조종하에서 친일 주구인 김 성수 도당에 의하여 《한국 민주당》이 결성되였으며, 미제가 오래 동안 길러낸 리 승만을 중심으로 《독립 촉성 중앙 협의회》가 조직되였다. 뿐만 아니라 김 구를 비롯한 《상해 림시 정부》에 있던 자들이 규합되였으며, 우익 청년 단체인 《독촉 청년회》도 조직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1945년 12월 말 현재 대체로 100 여개의 대 소 정당, 단체들이 출현하여 제각기 대중을 쟁탈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우익 반동 정당들은 우리 당의 주위에 광범한 대중이 집결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갖은 사기와 기만 술책으로써 대중을 자기편에 이끌려고 책동하였다. 지어 가장 악질적인 반동 부르죠아 정당이였던 《한국 민주당》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8시간 로동제의 실시》, 《공장 관리에의 로동자 대표의 참가》 등 위선적인 구호를 들고 대중을 유혹하려고 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반동 세력이 대두함에 따라 이미 그의 정체가 폭로되여 위축 약화된 북조선의 반동 세력도 리면에서 은연히 미제와의 결탁을 음모하면서 낡은 제도의 유지를 위하여 각종 책동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조건하에서 일부 중간 계층들(주로 종교인이나 기업가, 상인들)도 《비록 비조직적이라 하여도… 우리의 조직과 력량이 강화해 갈수록… 분산적 상태에서 조직에로 통일》(김 일성)되여 가고 있었다. 심지어 조 만식과 같은 반동 분자들은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반쏘 반공》 사상을 류포시키면서 중간 계층들을 탈취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의 분렬 책동은 우리 당의 대중 전취를 위한 투쟁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해방 전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막대한 해독을 끼친 온갖 종파 분자들과 지방 할거주의자들은 해방 후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여 당내의 《헤게모니야》를 쟁취할 목적으로 온갖 이색 분자들까지 자기 주위에 규합하고 전국 각지에 틀고 앉아 파벌 투쟁에 몰두함으로써 당내 사상 의지의 통일을 파괴하며 로동 계급의 분렬을 조성하고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종파 분자, 지방 할거주의 분자, 개인 영웅주의자들은 있지도 않는 소위 《서울 중앙》을 지지한다는 《구호》 밑에 우리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로골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심지어 박 헌영 간첩 도당은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려는 우경 투항주의적인 구호까지 제창하면서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마비시키려고 하였으며 로동 계급의 대렬을 4분 5렬시키려고 획책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은 우리 당이 시초부터 내외의 계급적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 속에서 그리고 복잡하고 간고한 조건하에서 대중 전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이 복잡하고 어려운 난관들은 장기간의 항일 무장 투쟁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 핵심에 의하여 지도된 우리 당이 대중 전취를 위한 가장 정확한 방침을 수립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 있게 투쟁한 결과 극복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튼튼히 결속하고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여 나아갔다.

해방 직후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은 당 창립 대회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였다.

당 창립 대회는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기본 방침으로서 우선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 발전의 소여 단계 혹은 소여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전략적 및 전술적 방침이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트 당의 공고한 통일의 조건의 하나는 당의 정치적 전략과 전술의 정당성에 있으며 《이 정당성을 광범한 대중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는 것》(전집, 제 31권, 조선문 판, 8페지)이다. 만약 당이 대중에게 자기의 옳은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중으로부터의 지지와 신임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그 당은 대중 속에 깊이 뿌리 박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옳은 로선과 정책을 제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대중을 전취함에 있어서 제 1차적 의의를 갖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방 직후의 복잡한 정세하에서 우리의 혁명 과업을 성과있게 수행하며 대중의 절박한 요구들을 반영한 그러한 정확한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창립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우리 혁명이 반제 반봉건적 과업 수행을 목적하는 인민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혁명 성격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의 기본 임무는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창건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체 반제 반봉건적 민주 력량을 집결하여 통일 전선을 형성하여야 하며, 민주주의적 건국 사업에 가장 큰 장애물인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과 국제 파씨스트 주구들을 청산하며, 통일적인 림시 정부 수립의 토대로 되는 지방 인민 정권 기관을 조직하여 제반 민주 개혁과 민주 건설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당면 과업을 제시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관련하여 혁명의 간고성, 장기성, 복잡성이 예견되는 조건하에서 혁명의 전국적 완수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북반부를 강력한 혁명적 민주 기지로 전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제시된 우리 당의 정치 로선은 해방 직후의 정세에서 조선 인민이 나아갈 《가장 곧고 가장 빠른 길》이였다.

그러나 종파 분자, 지방 할거주의 분자들은 우리 혁명의 성격을 외곡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박 헌영 간첩 종파 도당들은 우리 혁명이 순수한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떠벌리면서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역도들에 대한 지지를 인민들에게 강요하였다. 다른 한편 《장안파》들은 우리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지껄이면서 조선 로동

계급의 동맹자로서는 오직 도시와 농촌의 반(半)프로레타리아 요소들만 될 수 있으며 각종 소부르죠아 계층은 《호의적 중립》을 취하게 하며 민족 부르죠아지들은 《진압》의 주요 대상으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에 종파 분자들이 여러 가지 좌우경적, 기회주의적 《구호》를 제창하면서 공산주의 대렬을 혼란케 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을 때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우리 당의 정치 로선은 당원들과 대중에게 우리 혁명의 성격과 정치 경제적 과업, 혁명의 동력과 대상을 명시함으로써 그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었으며 장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갖게 하였다. 이리하여 대중으로 하여금 우리 당만이 조선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당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하였다.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은 그 후 우리 나라에서의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의 수행과 특히는 전후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건설 행정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더욱 확증되였으며 우리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두텁게 하였다.

대중 전취를 위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에서 중요한 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당 조직 로선의 확립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창립 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서 우리 당을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원칙과 강철같은 규률로 통일 단결되고 로동자, 빈농, 혁명적 인테리 속에 뿌리 박은 로동 계급의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천명된 우리 당의 조직 로선은 우리 나라의 혁명 성격에 비추어 가장 광범한 대중과 밀접히 련결된 전투적인 조직으로 우리 당을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파 분자들은 1920년대에 창건되였던 조선 공산당을 말아 먹은 쓰라린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당을 소부르죠아 인테리 집단으로, 민족과 혁명의 변절자들의 피난처로, 배타주의적인 협소한 종파 소굴로 만들려고 기도하면서 우리 당의 조직 로선을 반대하여 나섰다.

그렇기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당 창립 대회에서 종파 분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면서 당을 강철같은 로동 계급의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원칙적인 방향들을 명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당내에 잠입하여 당의 조직 사상 체계를 혼란 약화시키며 당과 대중을 분리시키려는 친일 분자, 각종 이색 분자들을 철저히 숙청하며 그들이 잠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종파의 활동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종파 분자, 량면주의자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당이 로동자, 빈농민들 속에서 우수한 선각 분자들을 자체 내에 흡수함으로써 로동 계급의 대중적 정당으로서의 당의 구성 성분을 부단히 개선하며 당내 강철같은 볼쉐위크적 규률과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원칙을 확립할 것을 명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명시된 우리 당의 조직 로선은 그 후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화함에 있어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으며 전 당은 이 로선에 기초하여 우리 당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 당은 제 3차 확대 집행 위원회를 통하여 종파 분자들의 해독 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되였던 당의 구성 성분상 결함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고 당내 볼쉐위크적 규률을 강화하며 중앙 집권제적 당 조직 체계를 확립하며 당의 외곽 단체—사회 단체들에 대한 당적 지도와 대중과의 련계,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 등을 강화할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강력한 대중적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발전에 있어서와 당의 가일층의 공고화에 있어서 거대한 사업들을 수행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당은 제 3차 확대 집행 위원회를 계기로 하여 대중 전취를 위한 투쟁에서도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해방 후 복잡한 정세하에서 자기의 정체를 교묘하게 은페하고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가장하고 우리 당내에 기여 들어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파괴하는 악질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던 가짜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철저히 폭로하였다. 우리 당은 한편 당원들로 하여금 모든 분야에서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느 때 어떤 곳을 물론하고 군중을 위하여 살며 군중의 리익을 위하여 싸울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엄격히 의거하여 군중들을 향하여 《명령만 할 것이 아니라 이신 작칙(以身作則)하여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야 하며 그들이 모른다고 시비하며 비방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접근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군중의 가장 친근한 벗이 되도록 하는 사업 작풍》(김 일성)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전개함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였으며 광범한 대중을 당 주위에 집결할 수 있었다.

해방 직후 대중 전취를 위한 우리 당의 기본 방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의 인전대인 사회 단체들을 조직하고 그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집결시키는 사업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창립 대회에서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각 지방에서 분산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사회 단체들을 정비하고 전국적인 유일 조직으로 발전시키며 그의 지반을 확대 강화하고 그 단체들 내에서 당의 령도권을 강화하는 사업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다.

또한 1945년 11월에 있은 당 제 2차 확대 집행 위원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대중을 전취하기 위해서는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 인테리 등 각계 각층의 군중을 우리 당 주위에 통일 단결시키는 사회 단체들을 조직하는 것이 절박한 과업이라고 하면서 사회 단체들을 조직함에 있어서 엄격히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과업, 그로부터 흘러 나오는 우리 당 기본 정치 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전체 애국적 력량을 결속할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각지에서 사회 단체 조직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우리 당의 지도하에 1945년 11월 18일에는 북조선 녀성 동맹, 1945년 11월 30일에는 북조선 직업 총 동맹, 1946년 1월 17일에는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 1946년 1월 31일에는 북조선 농민 동맹, 1946년 3월 25일에는 북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 등 사회 단체들이 조직되였으며 조직 후 곧 300 여만 명의 군중들이 이에 집결되였다.

특히 당은 종파 분자들의 《공청 로선》을 반대하고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통하여 보다 광범한 청년 군중을 전취하였다.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사업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정세에 적응하게 광범한 청년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고 통일적인 청년 운동을 보장하는 중요한 대책의 하나였다.

만일 당이 공청이라는 국한된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청년 운동의 규모를 좁히고 청년 운동을 분렬할 위험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적지 않은 청년 군중을 잃어 버릴 수도 있었다. 해방 직후에 《민주주의》의 탈을 쓴 조 만식이가 의식성이 어린 청년들 속에서 《반쏘 반공》 선전과 우리 당을 반대하는 악선동을 감행하면서 자기 주위에 청년들을 끌어 당기기 위하여 반동적인 《청년 동맹》을 조직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이를 실증해 준다.

따라서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은 조선 혁명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순응하는 가장 옳은 로선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헌영 도당은 공청을 민청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우경》이라고 떠벌리면서 이를 반대하였으며 지어 오 기섭, 정 달헌 등 종파 분자들은 《함남도에서만은 공청을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당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았다.

종파 분자들의 교활한 파괴 책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정확한 령도 밑에 공청을 민청으로 조직 개편하는 사업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광범한 민주주의적 청년 군중을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웠다.

이리하여 북반부에서는 로동 계급을 위시하여 농민, 청년, 녀성 등 기본 근로 대중이 우리 당 주위에 굳게 결속되였으며 각계 각층의 민주주의적 통일 전선을 결성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였다.

해방 직후 우리 당의 대중 전취를 위한 투쟁에서 다른 방침의 하나는 당의 통일 전선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였다.

우리 당은 통일 전선 로선을 제시하면서 《뭉어 놓고 뭉치자》고 한 리 승만의 잡교대와는 정반대로 친일파, 민족 반역자 등 우리 혁명의 원쑤들을 철저히 숙청하고 민주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모든 애국적 력량——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쏘련과의 친선을 지지하는 민족 부르죠아지까지도 최대한으로 망라하되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공산당의 독자성과 주동적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우리 당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제의 침략 정책의 본질과 우익 반동 정당들의 정치적 면모를 대중 속에 전면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일부 계층들이 가지고 있던 놈들에 대한 환상을 깨뜨려 버렸으며 그들을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다.

동시에 근로 대중을 정치적으로 각성시켰으며 그들을 우익 정당들의 영향으로부터 벗어 나올 수 있게 하였다.

당은 또한 각 계층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엄격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및 경제적 특성들을 고려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특히 민족 부르죠아지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당은 그들의 동요성과 우유부단성을 심중히 고려하여 그들과 통일 전선을 맺으면서도 그들에게서 발로되는 일체 부정적인 현상들과 불순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폭로 비판하고 개준하도록 하는 방침을 견지하였다.

또한 당은 일제 시대에 교육을 받은 낡은 인테리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그들이 비록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와 자본가들에게 복무하였지만 식민지 나라의 인테리였으니만큼 일정한 정도의 혁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해방 직후 혼란된 정세하에서도 온갖 악조건을 무릅쓰고 우리 당을 따라 오려는 그들의 혁명적 기세를 고려하여 이제부터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 혁명할 수 있다고 결론하였다.

당이 취한 이러한 방침은 각 계층이 처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형에서 그들을 최대한으로 전취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당은 또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투쟁 경험을 통하여 당 정책의 정당성을 확신케 하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친일 주구들을 청산함에 있어서 당은 이를 단독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중을 동원하여 대중의 손으로, 대중의 총의에 의하여 처단하도록》(김 일성) 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증오감을 한층 높이게 하며 그들을 나라의 주인된 영예와 새로운 민족적 자각성으로 교양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우리 당 주위에 튼튼히 묶어 세우기 위한 정확한 방침이였다.

해방 직후 우리 당의 대중 전취를 위한 투쟁의 정당성은 조선 문제에 관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뚜렷이 표현되였다.

우리 당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현을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지도하면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추구하는 반동적 목적과 그들이 들고 나온 《구호》의 본질,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레닌은 일찌기 정치적 폭로 전술은 《그 자체가 벌써 적의 대렬을 와해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며 적의 우연적 또는 일시적인 동맹자를 적에게서 분리하는 수단》(전집, 조선문 판, 제 5권 제 2분책, 230페지)이라고 가르쳤다.

우리 당은 반동들이 들고 나온 기만적인 《구호》의 본질과 그들의 죄악적인 정체를 폭로함으로써 그들을 대중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으며 반면에 대중을 우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시켰다.

전국 각지에서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을 지지 환영하는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는바 북조선에서만도 300 여만 명의 군중이 이에 참가하였다.

또한 당은 모쓰크바 3상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을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의 공동 투쟁으로 전개하였으며 1946년 1월 2일에는 각 정당, 사회 단체들이 이 결정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통일 전선 정책의 정당성을 실지로 증명하는 것으로 되였으며 대중 전취를 위한 우리 당의 승리를 의미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은 당의 주위에 집결된 로동 계급을 위시한 광범한 근로 대중에 튼튼히 의거하여 력사적인 민주 개혁을 비롯한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 과업을 성과 있게 완수하였다.

*　　　　*

우리 당이 해방 직후에 조성된 복잡한 정세 속에서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고 그들을 혁명 승리에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 행정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 전통을 옳게 계승 발전시킨 까닭이다.

항일 유격대는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빨찌산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구호 밑에 시종일관 인민과 생사 고락을 같이 하면서 인민과 같이 싸워 이겼다. 뿐만 아니라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의 첫 시기부터 근로 대중을 중심으로 광범한 반일 애국적 력량의 단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1936년 5월에는 조국 광복회를 조직함으로써 무장 투쟁과 인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혁명 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구축하여 놓았다.

이는 맑스-레닌주의적인 혁명적 군중 관점과 동시에 대중 전취를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원칙적 립장을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러한 항일 유격대의 고상한 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의 매 시기에 대중을 당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킬 수 있었으며 해방 후 우리 당 앞에 제기된 혁명 과업들을 성과 있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근 로 자　제 3호　(루계 172호)

편 집　위 원 회

발 행 소•근 로 자 사　　인 쇄 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1960년 3월 15일　　인　　쇄•1 9 6 0 년 3월 10일

ㄱ—31124　　값 50 전

서 적 안 내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리론 및 보도 잡지

평화와 사회주의 제 문 제

4×6배판, 128페지, 값 60전, 발행 매월 1회

본 잡지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제 문제를 천명하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문헌들을 게재한다.

본 잡지는 평화와 사회주의와 로동 계급의 행동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의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사업 경험을 연구 일반화하는 데 많은 지면을 돌린다.

본 잡지는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의 형편과 투쟁, 피압박 민족들의 민족 해방 운동 문제들을 천명한다.

본 잡지는 사회주의 건설, 국제 로동 운동, 식민주의 반대 투쟁에 관한 당면한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의견 교환에 지면을 돌린다.

본 잡지에는 공산주의 운동 및 로동 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들, 유명한 학자들, 평론가들, 민주 인사들이 기고한다.

본 잡지 조선문 판은 근로자사에서 발행한다

근 로 자 사

1960 년 3 월